

## 전혜린의 젠더의식과 실천적 글쓰기

이행미\*

### 차례

1. 전혜린의 글쓰기, 관습화된 여성성의 바깥을 향한 기투
2. 젠더 규범을 교란/초월하는 '자기' 인식의 순간
3. 여성성과 남성성의 경계를 넘나드는 여성들
4. 결론을 대신하여: '읽고-쓰는' 행위와 수행적 정체성

### <국문초록>

전혜린은 반복적인 일상이나 몰개성적인 삶을 견디지 못하는 민감한 감수성을 지닌 예외적 개인으로 이해되어왔다. '실존'과 '자기'를 추구하는 그의 목소리는 관념성을 부각하는 것이자 타인과 사회에 대한 무관심을 드러내는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현실과 불화하는 그의 의식세계는 '참된 자기'로 나아가기 어렵게 하는 억압적 현실과의 긴장과 경합을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전혜린이 추구했다고 여겨지는 관념적 가치들이 어떠한 맥락에서 생산되었고, 현실 문제와 어떠한 관련성을 띠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전혜린의 '자기'를 추구하려는 실천적 행위는, 그 과정에서 장애가 되는 당대 한국사회의 가부장적 관념 속에 굳어진 젠더 규범을 거부하면서 구체화되었다. 사회문화적으로 구성된 여성성을 내면화해야 하는 분위기 속에서, 전혜린은 한 개인이 여성성과 남성성에 속하는 면면들을 넘나들 수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이분법적 젠더체계의 견고함에 균열을 일으켰다.

---

\* 충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이때, 본질화된 젠더를 횡단하는 힘은 ‘자기’가 인식되는 찰나의 순간을 외면하지 않는 데서부터 출발한다. 사회적으로 여성의 자기 상실을 유도하는 고착화된 성역할 논리 속에서, 전혜린은 여성이라면 공통적으로 느끼게 되는 이 부조리함을 응시하는 것만이 인습과 타인의 시선을 따르지 않는 ‘자기’의 삶을 살게 하는 계기가 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은 방법은 샤르트르, 보부아르 등의 실존주의 철학과 루이제 린저의 『생의 한가운데』 등 그가 읽었던 책에서 나타나는 사유들과 밀접한 관련성을 보인다. 또한 독서를 통해 만난 단일한 정체성으로 규정되지 않는 복수의 여성‘들’에 대한 공감과 지지를 번역을 비롯한 산문에 담아냄으로써 공론장의 젠더 규범과 화합하지 않는 사유를 보여주었다. 이는 전혜린이 자신의 현실과 투쟁하고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글쓰기 실천의 동력과 방법을 그가 읽은 책과의 영향 속에서 키워나갔음을 알게 한다.

이처럼 전혜린은 읽고 쓰는 행위를 통해 젠더 규범을 동요하게 하는 문화적 실천을 수행했다. 규범화된 여성성과 남성성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자기’를 만들어가는 개인을 강조했고, 이는 결과적으로 당대 이분화된 젠더구조를 무너뜨리는 수행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볼 때, 전혜린 문학에서 발견되는 평범함과 속물성을 벗어나고자 하는 시도를 구체적 현실을 도외시하거나 현실 밖으로 탈주하고자 했다고 단언하는 것은 일면적인 해석이라 하겠다.

핵심어 : 전혜린, 젠더, 자기, 실존주의, 여성성, 남성성, 정체성, 독서, 번역, 수행성

## 1. 전혜린의 글쓰기, 관습화된 여성성의 바깥을 향한 기투

1961년 1월 1일 새해를 맞이하면서 쓴 일기에서, 전혜린은 생활하는 가운데 비집고 나올지도 모를 자신의 속물성을 경계하면서 “깨어있는 의식”을 견지하여 “진정한 실존”으로서 살아가겠다고 다짐한다.<sup>1)</sup> “의식하

는 나”와 “생활하는 나”가 점점을 형성할 수 없을 정도로 극도로 분열되었다고 여기는 이와 같은 심리 상태는 전혜린의 문학 세계의 주조를 이루는 것이기도 하다. 평범하지 않은 생(生)을 살기 위해 현실과 불화하는 고독한 자아의 이미지는 사후 그를 추모하는 글들을 통해 더욱 선명해졌다. 이를테면 일상에 대한 ‘권태’와 변뜩이는 심광 같은 ‘광기’는 전혜린이라는 이름과 불가분한 것으로 여겨졌다.<sup>2)</sup> 정신적 가치를 강렬하게 추구하는 전혜린의 모습은 천재성과 예외성을 설명하는 근거가 되는 한편 내면과 자아에 대한 경도는 곧 타인, 역사, 정치, 사회를 고려하지 않는 협소하고 빈약한 사유를 보여주는 것으로 환원되기도 했다.<sup>3)</sup>

하지만 실존이나 의식에 몰두하는 전혜린의 태도는, 이상을 온전히 구현하지 못하게 하는 타인의 시선과 외부적 요인이 강한 구속력을 행사하고 있는 현실을 극명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서가 되기도 한다. 전혜린의 글에서 발견되는 이러한 관념적 사유의 연원과 맥락을 질문하는 일은 여전히 부족하다.<sup>4)</sup> ‘실존’, ‘자기’, ‘순간’, ‘생’ 등 그가 자주 언급했던 이

- 1) 전혜린, 『미래완료의 시간 속에』, 전혜린 기념출판위원회 편, 광명출판사, 1966, 19~23쪽.
- 2) 이덕희는 전혜린이 평소 가장 많이 했던 말로 ‘권태’와 ‘광기’를 꼽고 있다(이덕희, 『서간으로 본 그의 인간상-전혜린 씨가 나에게 주고간 낱말의 의미들-』, 『여성』, 1965.3, 121쪽). 전혜린 사후 『여성』에는 『아아 전혜린! 그 타버린 불꽃- 요절한 여류의 정신적 편력』이라는 기획 하에 김남조, 이봉구, 이덕희, 호영송, 한무숙의 추모 글이 실린다.
- 3) 김윤식, 『침묵하기 위해 말해진 언어』, 『한국근대작가론고』, 일지사, 1974, 398~401쪽; 이동하, 『전혜린에 대해서 몇 가지 더 생각해야 할 것들』, 『한국문학과 인간해방의 정신』, 푸른사상, 2003, 300~312쪽.
- 4) 전혜린 문학이 당대 사회문화적으로 수용된 현상을 살펴보는 것이 아닌 전혜린의 의식 세계를 규명하고자 할 때, 그의 사후 발간된 단행본을 연구 대상으로 삼는 것은 명백한 한계에 봉착할 가능성이 크다. 전혜린이라는 기호를 낭만화하고 신비화하는 추모의 시선과 일정 정도 접점을 형성할 우려가 있기도 하다. 사후 출간된 네 권의 전집과 지금까지도 간행되고 있는 수필 및 일기와 서간 위주의 1, 2권은, 그가 발표했던 모든 글을 수록하고 있지 않으며 최초 게재되었던 상태에서 수정과 변형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김화영은 편집 과정에서 원고를 정리하면서 제목을 달고 “상당부분은 아예 뜯어고쳤다”고 기억한다(김화영, 『‘화전민’의 달변과 침묵』, 『바람을 담은 집』, 문학동네, 1996, 127쪽). 이덕희의 술회에

개념들이 어떠한 맥락에서 출현했으며, 그것이 전혜린을 둘러싼 현실 사회와 어떠한 관련성을 띠면서 발화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해방 이후 여성의 공적 영역 진출이 일반적인 현상으로 자리매김해 나감에 따라 자신의 능력과 의지를 기반으로 사회적 삶을 실현해 나가는 여성들의 수는 점차 늘어났다. 현실적인 여건의 변화와 상호 조응하여 여성성에 대한 종래의 관념을 성찰하려는 논의도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논자들 간의 세부적인 관점 차이가 있으나, 여성이 보다 주도적으로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지식과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견해가 중론을 이루었다.<sup>5)</sup> 이러한 담론 사이에서도 전혜린의 견해는 그간 남성과 여성의 본질로 여겨져 온 특징들이 기실 사회문화적으로 구성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 이채를 띤다.<sup>6)</sup> 그는 사회적으로 주어지던 여성성이 오히려 진정한 자아를 상실하여 비본질화의 길을 걷게 한다면서, 독립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기반이 구축된다면 여성은 남성에게 의존하지 않고 참된 자기의 생활을 추구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렇듯 전혜린은 그의 강렬한 염원을 현실화하기 어렵게 하는 두꺼운

---

따라 전혜린이 수필집 간행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이덕희, 『전혜린(사랑과 죽음의 교향시)』, 나비꿈, 2012, 80, 106쪽), 그것을 현재 단행본과 같은 형태로 추단하긴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다. 따라서 이 논문은 전혜린의 일기와 서간 등의 자료를 제외하고는 전집에 실리기 전의 글을 분석 대상으로 삼으며 전집은 원문과의 대조를 위한 참고 대상으로 활용하기로 한다. 최근 전혜린 사후 제작된 유고집이 편집 과정에서 ‘해석된’ 텍스트일 가능성에 대해 논하면서, 실제 지면에 발표된 자료를 통해 그의 문학 세계의 일단을 들여다보는 논의가 제출되기도 했다. 이행미, 『전혜린 문학에 나타난 ‘고향’과 ‘회상’의 글쓰기』, 『한국현대문학연구』 제54집, 한국현대문학회, 2018, 413~453쪽.

- 5) 김복순, 『전후 여성교양의 재배치와 젠더정치』, 『『여원』연구: 여성·교양·매체』, 한국여성문학학회 『여원』연구모임 편, 국학자료원, 2008, 44~53쪽.
- 6) 김복순은 동시기 활약했던 또 다른 평론가인 정충량과 비교하면서 전혜린의 탁월함에 대해 논한 바 있다. 두 여성 평론가는 모두 여성의 자주성 실현의 노력을 강조하였으나, 정충량은 여성의 열등성을 전제하고 논의를 전개하였고 전혜린은 그것이 사회적 관념임을 논파했다. 위의 글, 49~51쪽.

장벽을 구성하는 인자 중의 하나로 여성을 종속적인 존재로 보는 인습과 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런 만큼 전혜린의 삶과 글에서 사회적으로 규정된 여성성 또는 여성의 역할을 거부하는 태도는 연구자들에 의해 여러 차례 조명되었다.<sup>7)</sup> 이들 연구는 조금씩 관점의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전혜린의 주변부적 위치 혹은 타자의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는 현실에 주목한다. 가령, 본질적 존재로서 자아를 추구하기 위해 남성중심의 상징질서로 진입하려고 했으나 결국에는 여성이라는 또 하나의 본질로 인해 실패할 수밖에 없다거나,<sup>8)</sup> 한국문학제도 내부에 편입하지 못하게 된 원인을 남성중심적 질서 아래 규율되는 여성성만을 승인하는 현실에서 찾는 연구가 제출되었다.<sup>9)</sup> 전혜린이 서 있는 경계 밖이라는 위치성이 현실과 길항하고 있음을 살펴보는 두 연구는, 자신의 이상을 현실에 구현하는 과정에서 노정한 한계와 실패를 의미화하거나, 능동적으로 거부했다고 평가하는 데서 견해를 달리한다. 이때 흥미로운 점은 전혜린이 관습화된 여성성을 거부하는 젠더 실천이 남성성의 지향과 맞물려 나타나며, 그것이 일종의 ‘본질’ 추구의 문제와 연결되는 것으로 다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전혜린의 젠더의식을 좀 더 면밀히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여성성뿐만 아니라 남성성에 대한 그의 이해를 논구할 필요성을 상기한다.

전혜린은 여성에 대한 논의가 남성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7) 김양선, 『1950년대 세계여행기와 소설에 나타난 로컬의 심상지리 : 전후 여성작가들의 작품을 중심으로』, 『한국근대문학연구』 제22호, 한국근대문학회, 2010, 215~220쪽; 김현옥, 『잉에보르크 바흐만과 전혜린-1950년대 전후 독일 및 한국 여성지식인의 삶과 문학』, 『혜세연구』 제20집, 한국혜세학회, 2008, 318~321쪽; 서은주, 『경계 밖의 문학인-‘전혜린’이라는 텍스트』, 『여성문학연구』 제11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04, 33~56쪽; 장순란, 『한국 최초의 여성 독문학자 전혜린의 삶과 글쓰기에 대한 조명』, 『독일어문학』 제21호, 한국독일어문학회, 2003, 149~174쪽; 진성희, 『장아이링과 전혜린의 글쓰기와 ‘일상’』, 『중국어문논역총간』 제22집, 중국어문논역학회, 2008, 323~345쪽.

8) 장순란, 앞의 글, 157~161쪽.

9) 서은주, 앞의 글, 41~42쪽.

고 보면서, 지금의 가시화된 젠더 형태는 역사적으로 구축된 상황과 삶 속에서 만들어진 것으로서 고정된 유형이 아니라고 주장했다.<sup>10)</sup> ‘자기’라는 ‘실존’이 ‘본질’에 선행한다는 실존주의적 사유에 공명했던 그에게 ‘젠더’는 사회적 실천에 따라 구조화되는,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것이었다. 남성성은 여성성의 반대편에서 확고하게 자리하는 규범적 유형이 아니라 존재와 역사를 형성하는 데 개입하는 행위에 의해 변하는 가변적인 것이다.<sup>11)</sup> 따라서 전혜린의 젠더의식을 특정한 가정이나 범주, 유형이나 규범으로 설명하려는 접근은 고정성과 지속성을 지닌 본질을 상정한다는 점에서 일정한 한계를 노정할 수밖에 없다.

기실 젠더에 대한 균일하지 않은 인식은 전혜린의 글에서 비교적 쉽게 찾아볼 수 있다. 1950~60년대 걸쳐 활동하면서 쓴 몇 편의 산문과 번역문, 그리고 사후 공개된 일기와 편지에는 전혜린이 당대 여성 지식인으로 살아가면서 느꼈던 제약과 억압, 내면적인 동요가 어렵지 않게 발견된다.

10) 이와 같은 전혜린의 인식은 시몬느 드 보부아르의 『제2의 성』의 독서 체험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보인다. 실존주의에 대한 관심은 이를 방법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보부아르의 저서에 대한 관심과도 연결된다. 전혜린의 젠더의식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 글로 다루어지는 『여성의 약점- 약점 7: 사치스럽다』의 도입에는 『제2의 성』 제1권 『사실과 신화』 중 『역사』 부분의 일절을 직접 인용하고 있기도 하다 (“『여자는 전제로 보아서 아직도 하인의 신분에 있다. 그 결과 여성은 자기로써 살려고 하지 않고 남성으로부터 이렇다고 정해진 자기를 인식하고 자기를 선택하도록 된다. 남자의 손에 쥐어진 경제적 특권, 남자의 사회적 가치, 결혼의 명예, 남자에 의존하는 것에서 얻는 효과, 이러한 모든 것이 여자들로 하여금 남자의 마음에 들도록 애쓰게 하고 있다.” (전혜린, 『여성의 약점- 약점 7: 사치스럽다』, 『여원』, 1960.12, 206쪽). 『제2의 성』의 국내 번역본으로 1960년 이전의 것은 제2권 1부 『형성』이 이용호(『第二의 性 1』, 백조서점, 1955)에 의해 부분적으로 번역되었을 뿐이다(조혜란, 『『제2의 성 Le deuxieme sexe』의 초기 한국어 번역과 수용 : 이용호의 1955년, 1964년 번역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45~49쪽). 그렇다면 전혜린이 이 글을 쓰기 전후 한국어역이 아닌 다른 저본으로 『제2의 성』을 읽었을 가능성도 간과할 수 없다. 한편 『여성의 약점- 약점 7: 사치스럽다』은 전집에 실리면서 『사치의 바벨탑』이라는 제목으로 개제(改題)된다. 전혜린, 『사치의 바벨탑』, 『그리고 아무말도 하지 않았다』 (전집 1), 『청산문고』, 1968, 149~154쪽.

11) R. W. 코벨, 안상욱·현민 역, 『남성성/들』, 이매진, 2013, 112~135쪽.

“성이란 화폐처럼 중성적일지 모른다. 거기에 색채를 부여하는 것은 인습 같다”고 생각하면서도,<sup>12)</sup> 결혼 생활 속에서 점점 인간으로서 협소해져 가는 자신을 보면서 “나 자신 속에서 발견한 여자가 나를 절망케 한다”고 토로하고,<sup>13)</sup> 어머니와 아이는 서로 타자(他者)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한편 자기 분신으로 여길 정도로 딸에 대한 강한 애착을 보이기도 한다. 결혼하고 아이를 키우는 현재의 삶을 후회하지 않는다면, 결혼은 개성을 말소시키며 여성을 일반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므로 만약 지금 선택권이 주어진다면 독신으로 살아가겠다고 생각한다.<sup>14)</sup> 이렇듯 의식적으로 자기가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지만, 현실에서의 생은 거기에서 벗어나는 감정과 체험들을 전혜린이라는 한 개인의 일부로 자리매김하게 만든다. 또한 허영과 사치, 조신함 등을 내면화한 여성들과 온전한 연대의 지점을 발견할 수 없다는 자의식을 드러내 보이면서도, 한편으로 삶 속에서 그와 같은 규범과 감정에 익숙해지거나 휩쓸리게 되는 자신을 비롯한 여성들의 모습에 연민의 시선을 두기도 했다.

이처럼 전혜린의 글에 나타난 여성과 여성성에 대한 인식은 단일한 틀

12) 1964년 5월 9일의 일기. 전혜린, 『미래완료의 시간 속에』, 166쪽.

13) 1958년 10월 15일의 일기. 전혜린, 『이 모든 괴로움을 또다시』 (전집 2), 청산문고, 1968, 17~18쪽.

14) 전혜린은 자신의 체험과 독서 체험 등을 살펴보았을 때, 결혼생활의 불행함은 개인에 따라 질적으로 변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내 정신적 풍토에 꼭 와닿는 결혼생활도는 이상히도 모두 어둡다. 『테레즈 데게루』니 『생의 한가운데』니 『데리아 또는 조르주·쌍드의 생애』(모오로와 작)니 『메테아』니 『율리에 양』이니에 점묘(點描)된 결혼 생활의 이모습 저모습이 내 심금에 와 부딪친다. 공감을 준다. 물론 내가 꿈에도 그런 결혼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또 하고 싶어 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결혼생활이란 원칙으로 마땅히 『그런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내 뇌리에 도사리고 있는 모양이다. 이렇게 내 뇌리에 와닿는, 당연히 그러리라고 생각되는 결혼생활도 다 그런 다악한 색인 것을 보면 틀림없이 나도 독신을 고수했을 것만 같다.” (전혜린, 『남자와 남편은 다르다』, 『여상』, 1963.11, 291쪽). 이 글은 ‘결혼 전후/ 내가 미혼이라면’이라는 기획에 실린 글로, 같은 기획에 실린 글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서운함을 지닌 안정법(安定法)』(여석기), 『어머니론 신인생, 작가론 『제로』』(한무숙), 『좋은 아내는 좋은 남편이 되는 것』(박익수) 이 글은 동일한 제목으로 전집 1권에 실린다(171~174쪽).

안에 있기 어려워 보이는 이질적이거나 모순적으로 보이는 지점들이 한 데 모여 복잡다단한 양상으로 나타난다. 이는 그의 젠더의식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열등함에서 본질적인 상태 혹은 특정 질서로의 지향으로 살피기보다는 실천 과정에서 생겨나는 불안과 모순적인 지점들, 다층적인 힘들과 인식들의 경합을 들여다봐야 할 필요성을 환기한다. 십 년이 채 못 되는 시간 동안 전혜린은 글과 자신의 삶에서 사회문화적으로 구성된 여성성이라는 규범을 거부하는 동시에 그 규범 앞에 호명된 자신을 발견하고, 그 테두리에서 벗어나거나 혹은 배제된 잔여로 존재하였다. 그리고 이는 사회적으로 규범화된 이분법적 젠더구조의 안정성을 의문시하거나 초월하고자 하는 실천적 행위로 이어졌다.<sup>15)</sup>

이와 같은 전혜린의 고투의 여정은 고정되거나 정형화되지 않은 정체성, 역동적인 변화를 내용으로 하는 ‘자기’에 대한 인식에 의해 추동되었다. 그것은 순간(찰나)에 번뜩이는 것이자 변화하는 ‘과정’의 연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그 결과를 낳는 견고하고 균질한 내면을 지닌 주체를 상정하지 않는다.<sup>16)</sup> 따라서 당대 사회적 규범에 부딪히면서 의식과 생활 차원에서의 자아가 경합하는 과정과 그 노력을 들여다보는 것은, 전혜린이 활동하던 시기 젠더를 구성하는 여러 구성적 행위와 담론을 해체하는 시도가 될 수 있다. 나아가 전혜린의 젠더의식이 당대 사회적 맥락 속에서 어떠한 의미 지평을 형성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당시 그의 문학 행위의 의미를 온당하게 평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15) 주디스 버틀러, 조현준 역, 『젠더트러블』, 문학동네, 2008, 114~149쪽.

16) 이때 ‘자기’는 순간적으로 발견되거나 각성될 수 있으나 ‘지속’이나 ‘영원’에 붙들리지 않는다. 이러한 인식은 전혜린의 젠더의식의 가장 근본적인 특성으로, 당시 다른 논자들과 변별되는 지점이다. 이에 대해서는 본론을 서술하면서 상론하도록 하겠다. 한편 이러한 주제에 대한 이해는 버틀러의 정체성에 대한 이해와도 만나는 지점이 있다고 판단된다(위의 책, 147~149쪽). 또한 이와 관련하여 전혜린이 글을 통해 다수의 페르소나를 연기하고 있다고 분석하는 김기란의 연구는 전혜린을 단일한 주체로 보지 않고 그 균열을 살펴보고 있어 주목을 요한다. 김기란, 『1960년대 전혜린의 수필에 나타난 독일 체험 연구』, 『대중서사연구』 제23호, 대중서사학회, 2010, 80~88쪽.



## 2. 젠더 규범을 교란/초월하는 ‘자기’ 인식의 순간

1950년대 말에서부터 60년대 초에 이르기까지 전혜린은 그간 여성의 영역으로 분류되거나 여성적인 것으로 인식되어온 요인들을 상대화하는 글을 여러 차례 발표한다. 역사적으로 남성과 여성의 기질이 ‘변화/방랑’과 ‘지속’의 이미지로 구획되는 경계를 ‘가정’이라고 생각했던 만큼 그의 주된 비판은 가정 내에서의 여성의 역할이나 활동으로 모여졌다. 특히 여성의 본분을 가정 내 역할로 여기는 관념은 과거와 달리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활발해져 가는 현대까지도 남녀 모두에게 강력한 성규범으로 작동하고 있어 더욱 큰 문제로 여겨졌다.<sup>17)</sup> 전혜린은 가정에서 주부의 활동이 기계적으로 반복되는 일과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진정한 생활’ 또는 ‘참된 자기’를 위한 일과 정반대에 놓여 있다고 생각했다. ‘아무나의 생활’이 아닌 평범하지 않은 ‘나의 생활’을 살아야겠다는 의지는 한국 사회에서 여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더욱 강하게 추동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시각은 여성에게 현모양처이자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주부라는 정체성을 내면화하게 하여 사적 영역의 주체로 재배치함으로써 가부장적 젠더 관계를 재질서화하는 데 공모했던 동시대 주류 주부 담론과 구분된다.<sup>18)</sup> 가사노동의 과중함을 완화하기 위해 서구의 가정을 모범으

17) 전혜린은 여자의 본분을 가정 내 역할로 고정하는 인식이 직업 있는 여성인 자기에게 오는 콤플렉스라고 치부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전혜린, 『남자/ 그 영원한 보헤미안』, 『여성』, 1963.8, 87~88쪽). 이 글은 ‘고발당한 한국남성’이라는 특집에 포함된 글이다. 함께 수록된 글은 다음과 같다. 『의협심이라는 그 악세사리』(정충량), 『한국남자들의 비속성』(조경희), 『남자다운이라는 그 위장성』(김활란), 『미남은 결코 양부(良夫)가 못 된다』(나희주), 『좌담: 고발하고 두둔하고』(윤길숙, 김재광, 정영희) 『매력있는 남자란』(허근욱, 남소희, 손금옥, 유순중, 이은숙, 이성실) 이 글은 제목의 변경 없이 전집 1권에 수록된다(175~182쪽).

18) 김현주는 전쟁이 끝난 후 남성들이 사회와 가족으로 복귀하자 사회에 진출했던 여성을 다시 가정의 영역으로 배치해야 했고, 당대 『여원』을 중심으로 전개된 주부 담론은 성적 영역의 분할과 이데올로기적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였다고 지적한다. 김현주, 『1950년대 여성잡지와 ‘제도로서의 주부’의 탄생』, 『『여원』 연구: 여성·교양·매체』, 한국여성문학학회 『여원』 연구모임 편, 국학자료원, 2008, 59쪽.

로 삼아 생활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는 점에서 다른 논자들과 접점을 이루나, 가정을 신성화하는 전제를 공유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 것이다.

당대 여성에 대한 인식을 살펴볼 때 주요한 참조점이 되는 대상으로 식모를 들 수 있다. 여성을 가정의 태두리에 머무는 존재로 보는 시각이 우세했던 만큼 식모를 두는 것은 여성의 태만과 허위를 보여주는 사례로 이해되기도 했다.<sup>19)</sup> 당대 지배적인 주부 담론에서, 식모는 주부가 현모양처와 가정이라는 사적 영역의 담당자로 온전히 서기 위해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존재였다.<sup>20)</sup> 전혜린 또한 생활 개량을 통해 가사 노동을 수월히 할 수 있도록 하여 식모를 두지 않는 것이 좋다고 보았다. 그러나 주부의 전문성을 부각하는 것으로 전적으로 환원되지 않는 지점들을 발견할 수 있어 눈길을 끈다. 이를테면 여성의 육아 부담을 경감시켜 줄 탁아소나 보육원과 같은 사회시설이 제도적으로 보편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과중한 가사노동에 의해 정신과 육체적으로 여유를 갖지 못한 여성이 되레 왜곡된 모성애를 가질 수 있다고 경계한다. 어머니 또한 육아를 위해 필요한 학문을 ‘공부’하면서 아이를 키워야 하고, 기분과 감정에 휩쓸려 맹목적으로 아이를 대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모성애를 무조건적으로 숭배하는 인식에 거리를 두고 있으나, 바람직한 어머니상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가정 내 여성의 역할과 그와 같은 삶의 모습을 전적으로 배척하고 있지도 않다.<sup>21)</sup> 이러한 진술은 그가 가정 내 여성의 삶을 비본질적인

19) 오상원은 주부의 전문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식모가 없어야 하며, 식모를 둔 여성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유한마담 생활을 하면서 남편을 착취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오상원, 『여성의 약점- 약점 4: 의지하러 한다』, 『여원』, 1960.12, 199쪽.

20) 가령 ‘식모’를 주제로 한 좌담회에서, 참여자들은 식모를 두고 있는 현실에서 생겨나는 문제점이나 식모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만, 결국 식모 없이 가사노동을 수월히 할 수 있도록 생활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동의하면서 논의가 마무리된다. 『좌담회: 식모 - 생활개선을 위한 주부들의 공동연구』, 『여원』, 1958.8, 146~154쪽.

21) 한국 가사 노동 문제의 대안을 제시할 때, 전혜린이 주로 참조하는 대상은 독일의 가정이다. 그에 따르면, 독일에는 아이의 수가 적고, 동네마다 탁아소가 몇 개나

것으로 여기고서 당대 한국 여성의 실제 삶의 현장에 무관심했다는 평가를 달리 하게 한다.

한 가지 더 주목할 점은 식모를 이해하는 그의 접근 방식이다. 언뜻 보면 식모가 없는 가정을 더 나은 것으로 보는 듯한 이러한 주장은 식모와 주부의 위계를 설정하는 여타 주부 담론과 연결되는 면이 있다. 이는 엘리트 여성으로서 하위주체 여성에게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전혜린의 인식론적 한계가 드러나는 부분임을 부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전혜린은 식모의 노동이 마치 주종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듯한 ‘부자유’한 성격을 지녔고, 보수까지 낮은 식모살이를 하면서밖에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농촌의 현실이 문제라고 말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활 수준의 향상과 실업자가 없는 완전고용의 실현이 필요하다고 본다.<sup>22)</sup> 식모라는 직업을 무가치하다고 보는 그의 시선은 자유롭고 독립적이지 못한 직업이자 생활을 영위하기에도 안정적이지 못한 경제활동이라는 데에 초점이 모여 있다. 이는 직접적으로 표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당대 여성의 경제활동 문

---

있다. 그 결과 여유가 생긴 여성은 보건, 아동심리, 도덕 등을 연구함으로써 아이들의 교육에 더욱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게 된다(전혜린, 『식모와 주부의 노동』, 『여원』, 1961.9, 139~140쪽). 한편 『식모와 주부의 노동』은 현실 문제를 구체적으로 짚어내면서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글로, 대개 전혜린의 글의 특징으로 간주되는 관념성과 추상성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에서도 이채롭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글은 전혜린이 구체적인 현실 문제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거나 그것을 문제의식으로 발전시키지 못했다는 평가를 재고하게 하는 단서가 된다.

- 22) 다음과 같은 대목을 통해 이를 짐작할 수 있다. “식모에게 주는 보수가 싸서 어렵지 않게 식모를 둘 수 있는 데 (식모라는 노동력을 구매하는 이유가-인용자) 있을 것이다. (...) 그뿐 아니라 독일 같은 데서는 거의 100% 고용이 실현되고 있는 상태여서 실직자가 없으므로 더구나 식모를 구하기가 힘들다고 들었다. 같은 돈을 벌 바에야 주종(主從) 관계의 냄새가 나는 식모살이보다는 자유롭고 독립적인 여직공이나 여점원 쪽을 택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 그와는 달라 실직자가 허다하며 농촌에서 굶주린 식모 취직 희망자가 수없이 상경하고 있는 형편이니 대우에 있어서도 외국에 비하면 무척 쉽게 식모를 둘 수 있는 셈이다.”(140쪽), “그리고 농촌의 생활수준이 높아지고 실업자가 없도록 완전고용이 실현되고 나면 현재의 대우와 수당으로는 아무도 식모가 될 것을 지망하지 않게 될 것이므로 현재의 누구나가 다소 불만을 품고도 할 수 없이 애용하고 있는 식모제도가 소멸되고 말 것이다.”(141쪽) 전혜린, 『식모와 주부의 노동』, 『여원』, 1961.9.

제와도 연결된다. 전쟁 이후 남성이 사회로 복귀하면서 여성 경제활동 인구가 안정적인 직업 부문에서 감소 추세를 보인 반면 일용노동자의 수는 증가했던 당대 현실을 고려할 때,<sup>23)</sup> 전혜린의 주장은 다른 논자들과 확연히 구분되는 지점이 있다. 식모제도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은 주부의 삶에 신성성을 더하려는 것이 아니라 여성 전반이 가치 있고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직업군에 종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맥락에서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 가정에서의 여성의 삶이 보다 나아질 방법에 대해 논하면서도, 그 비판의 초점이 자신을 돌아볼 시간조차 마련하지 못하게 하는 가사노동의 과중함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다. 전혜린은 여성이 이러한 삶에서 완전한 행복이나 만족을 느끼지 못한다고 보면서, 여성을 사적 영역을 주관하는 주체로 자리매김하려는 흐름에서 이탈하는 주장을 개진한다.

여성의 자주성을 찾으려는 가장 조그만 움직임이나 생각까지도 조소되고 비난받아 왔고 다만 두 사람의 합의에 의해서 공동하게 생활을 건설해가고 둘이 다 자아의 성장을 지속시켜가는 공동체라고 보아야 할 결혼을 사회는 여자의 궁극적인 숙명, 여자의 자아발족과 발전의 무덤으로써 또 어떤 절대적인 영광스러운 예속으로써 가르쳐 주었다. (...)

(...) 즉 자기의 삶 전부를 실존을 스스로 순간마다 결단하고 세계에 향해서 투기하는 생활대신에 한 남성에게 자신을 꼭 맡겨버리고 자기는 더 이상 사고할 필요 없이 사소하고 무상하게 흘러가는 일상성과 사실성의 세계에 파묻히는 편이 얼마나 편하고 또 사회에서는 잘 받아들여진다는 것을 의식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어느 여자도 그것에 완전히 만족하거나 행복을 느끼지도 않을 것이다. 적어도 그런 생활에는 일순일순의 팽팽한 충일감과 초월(Transzendenz)의 느낌이 없을 것이다. 어느 주부든지 어떤 순간에는 반

23) 이임하, 『한국전쟁과 여성노동의 확대』, 『한국사학보』 제14호, 고려사학회, 2003, 257쪽.

드시 자기를 부조리하게 느낄 것이다. 쌀씻고 빨래하고 옷 꿰매고 나날의 무서울만큼 단조한 반복 속에서 그 여자의 의식은 넓게나마 눈을 뜰 것이다. 이것이 나의 생활인가 하고 그럴 때 우리는 그 의식의 각성을 소중히 포착해야 한다. 그리고 파고 들어가야 한다. 분명 그것은 나의 생활은 아닌 것이다. 누구나의 생활에 불과한 것이지. 자기를 사물이나 타자(他者) 속에 소외해 버린 일반적인 아무나의 삶이지 그것은 이 일회적인 나만이 가질 수 있는 삶은 아닌 것이 분명하다.<sup>24)</sup>

결혼으로 성립된 공동체는 두 사람이 만나 합의하여 서로 “자아의 성장”을 이루어야 함에도, 이를 저해하는 것이 결혼에 대한 ‘사회’의 관념임을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여자의 궁극적 숙명으로 여겨지는 가정 내 여성의 역할에 충실한 삶을 “어느 주부든지” “부조리하게 느낄 것”이라는 언급이다. 그는 이러한 인식, 불만족을 지식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각성이 아니라 순간적인 감정에 의해 촉발되는 것으로서, ‘모든 여성’이 느낄 수 있는 공통적인 것으로 의미화하고 있다. 잘나에 변덕이는 그 의식을 망각하지 않고 생활의 변화로 이끌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은 전혜린의 여러 글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그가 견지했던 핵심적인 명제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대목을 통해서 볼 때, 여성이 현

24) 전혜린, 『여성의 약점- 약점 7: 사치스럽다』, 『여원』, 1960.12, 207~208쪽. 1960년 12월 『여원』에 실릴 당시 ‘여성의 약점’에 대해 일곱 명의 필자가 쓴 글 중 하나로, 참여한 필자와 글의 제목은 다음과 같다. 『곧잘 유혹에 걸려든다』(심연섭), 『공짜를 좋아한다』(권승희), 『추켜주면 으쓱댄다』(김우중), 『의지하려 한다』(오상원), 『겁 많아 흠이다』(이문), 『눈물이 많다』(김일순), 『사치스럽다』(전혜린). 이 중에서 이문(李汶)과 전혜린을 제외한 논자들은 그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모두 여성의 약점을 남성과 대조되는 선천적 본능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문은 여성에 대한 인식이 최근 변화함에도 일상에서는 은연중 기성관념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여성이 독립적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경제적 능력과 사회적 지위를 향상해야 한다고 말한다. 또한 이를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적용되는 문제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문제제기에도, 해결을 위한 방법으로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 나간대거나 능력을 갖출 것, 약자로서 위축된 삶을 살지 않기 등 개인적 차원에 국한된 것만을 제시하고 있다.

실을 타파할 수 있는 힘은 지식과 교양을 기름으로써 얻을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의지가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순간의 감정을 응시하고 은폐하지 않는 진실 된 태도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복되는 일상을 타파하려는 그 순간의 생동하는 감각을 현실로 끌어 올리는 일이야말로 여성이 진정한 삶으로 한 걸음 나아가는 시발점이 된다는 것이다. 여성 해방을 사적 영역으로부터의 이탈에서 찾는 여러 목소리 중에서도 전혜린의 이체는 바로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 그는 자신이 경도되었던 실존주의 등의 철학을 여성의 구체적인 삶의 변화를 추구하고 매개하는 일종의 ‘방법적 사유’로 활용하고 있다.<sup>25)</sup> 즉, 생(生)의 순간마다 결단하고 투기(投企)하는 자세는 추상적 차원이 아니라 당대 여성의 현실을 돌고 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이처럼 개인의 의식 각성을 강조하는 전혜린의 주장은 현실과 유리된 정신적 차원에 속한 것으로 귀결되지 않는다. 이는 같은 글에서 흔히 여성의 약점으로 말해지는 ‘사치함’에 대해 재맥락화를 시도하는 대목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다른 사람들과 구분될 정도로 화려한 복장으로 자신을 꾸미는 행위는 사치와 허영을 즐기는 여성의 본능을 보여주는 사례가 아니며, 타인과 ‘구별되는’ 자기를 만들고 싶은 욕망이 환경의 제약 속에서 왜곡된 방식으로 표출된 것이다. 가정 내 여성은 “누구나의 생활”, “자기를 사물이나 타자의 속에 소외해 버린 일반적인 아무나의 삶”에 매몰되어가므로 그 반작용으로 자기를 표현할 수단이 요청된다. 성(性)의 구별 없이 인간이라면 세계 속에 ‘자기’를 확인받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있고, 사회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확신을 얻고 싶기 때문에 ‘자기’를 실현할 수 있는 나름의 방법이 필요하다. 따라서 여성의 사치함은 선천적인 약점이 아니며, 자기실현의 욕구를 원천적으로 봉쇄해버린 상황에서 가상적

25) 전혜린이 실존주의 등의 철학에 탐닉했던 것은 주지의 사실로, 이는 대개 사유의 엄밀성과 깊이를 가지지 못한 미숙한 상태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설령 그렇다 할 지라도, 자신의 배움을 현실 문제와 연결 지어 이해하고자 했던 시도에 대해서는 온당한 평가가 필요하다.

차원에서나마 민족을 채우려다 보니 생겨난 현상이다. 전혜린은 이처럼 여성의 약점을 논하는 기획에서 역으로 그것을 자연적인 기질처럼 생산해내는 사회의 메커니즘을 지적하고 있다.<sup>26)</sup>

하루의 일을 끝마친 여인이 덮여오는 저녁의 들판을 걷는다면, 어떤 여인의 마음에도 이상하게 허전함이 닥쳐움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것은 너무나 똑같은 하루의 일과(日課) 참된 『일』이 아니라 잡소한 『일들』이 주는 공허감인 것이다. 우리의 몸이, 손이, 몹시 바쁘게 아무 주저도 없이 부엌바닥도, 기름진 접시도, 또 빨래 담긴 짙은 비눗물을 만지고 난 후에 습격해오는 허전함과 불안감이 그것이다.

그것은 아마 『하지 않아서는 안 되는 일들』과 『참된 할 일』들이 일치하지 않는데서 나온 거리감(距離感)일 것이다. 어떤 빌딩에서 나오는 엘리베이터·걸, 어떤 백화점에서 나오는 점원, 어떤 유모차를 끌고 가는 어머니의 얼굴에도 떠있는 표정, 그곳에는 너무나 똑같은 허무의 냄새가 풍긴다. 그리고 피할 수 없는, 영원한 반복의 절망의 빛과. — 어떻게 이 영원한 쇠사슬을 탁 통겨버릴 때가 있으리라는 희망— 그것이 어떤 희망인지는 구체적으로

26) 전혜린은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물질적인 소비와 사치를 통해 외형적인 모습을 꾸미는 데 치중하는 것은 실존적 의미의 '자기'를 구현하는 일과 무관하다고 생각했다. 이를 근거에 둔 여성 젠더를 둘러싼 사치함에 대한 전혜린의 인식은 유럽과 미국에 대한 그의 상이한 평가와도 접점을 이룬다. 전혜린의 글에서 유럽은 정신적 가치가 발현되는 세계로, 미국은 소비중심문화가 팽배한 물질적 세계로 나타난다. 가령, 『『뮌헨』이라는 곳』(『여원』, 1959.7)에서 전혜린은 슈바빙 주민들이 서로 다른 삶의 방식을 고수하며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을 긍정하면서, 이러한 특징을 '대도시의 삶'과 구분되는 '시골의 삶'이라고 언급한다. 여기서 대도시의 삶은 물질적 풍요로움 가운데 동일한 욕망을 갖거나 규격화된 생활 방식을 좇는 삶을 뜻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전혜린이 뮌헨의 슈바빙 지구를 위시한 유럽을 그리워하는 마음의 기저에는 짧은 생애 동안 강렬하게 추구했던 '자기실현'의 가능성 혹은 '자유'를 그곳에서 발견할 수 있으리라는 판단이 자리한다. 전혜린의 서구 지향을 유럽을 본질화하는 선형적 사유가 투사된 것으로만 이해하기 어려운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논의의 초점은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유럽과 미국을 이해하는 전혜린의 상이한 태도는 선행 연구에서도 이미 주목된 바 있다. 김양선, 앞의 글, 215~218쪽; 서은주, 앞의 글, 47~52쪽; 이행미, 앞의 글, 442~443쪽.

로 생각해보지도 않으면서도— 을 막연히 머리속에 그릴 때만 그들의 생애 작은 행복의 찰나가 있다. (…)

지는 줄을 뻗히 알면서도 자기 전체를 걸고 하는 도박에 몸을 던진 사람의 견딜 수 없는 절망감과 긴급한 공포의 의식(자기를 의식적으로 파멸하고 있다는)이 온갖 주부들의 공통의식일 것이며 여기에 여자의 드라마가 있는 것이다. (…) 따라서 어떤 계기로 마치 번갯불을 맞은 것처럼, 즉자(卽自)와 대자(對自)가 부딪치게 되면, 그 여자는 자기가 아내, 어머니, 이런 이름 밑에 총괄되는 일반적인 무엇, 자기 아닌 어떤 것으로 자기가 화했다는 것을, 자기가 자기의 대용품으로 떨어졌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고, 그때 그 여자는 무서운 파멸의 구멍을 보게 되는 것이 보통이다.<sup>27)</sup>

인용문은 여성이 가정에서 하는 일이 얼마나 무의미한지 더욱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 주목을 요한다. 가사노동이 “참된 『일』이 아니라 잡소한 『일들』”이 되는 이유는 날마다 규칙적으로 하는 일정한 일로써 누군가가 대체해도 무방하기 때문이다. 여기서도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면서 느끼게 되는 허무는 전업주부의 전유물이 아니라, 직장을 다니고 있

27) 전혜린, 『미래완료의 시간 속에』, 298~299쪽. 인용문은 전혜린이 1959년 7월 1일 뮌헨에서 동생 채린에게 보내는 편지에 동봉한 ‘원고’로, 제목은 『지면서 가는 도박(賭博)- 여성(女性)에 관한 고찰(考察)-』이다. 전혜린은 동생 전채린에게 이 원고를 김규동 시인에게 전달하여 어디에든 내달라고 부탁한다. 현재 이 글이 수록된 지면은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나, 한 편의 완성된 원고로 게재를 요청했다는 점에서 여타 출판된 글들과 나란히 놓고 살펴볼 수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동생에게 보내는 편지를 살펴보면 그가 게재 또는 출판을 염두에 둔 원고를 어머니에게 보냈고, 그 과정에서 어머니가 많은 수고로움을 겪었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가령 1959년 3월 11일 일기에는 어머니에게서 온 편지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실려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극평론가인 유(YU)의 희곡 『안네 프랭크의 일기』가 곧 출판되고, 『미스터·이』가 <통행증>을 인쇄조차 하지 않고 어떤 해명도 하지 않고서 어머니에게 돌려주었으며, 어머니는 문고판으로 발행을 바란다며 여원사에 대해 상담해 왔다고 한다. 이에 대해 전혜린은 문고판으로 나온다면 행복하겠으나 출판의 현실화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고 적고 있다(위의 책, 139쪽). 이러한 저간의 사정을 고려할 때, 뮌헨에서 유학했을 당시 현재 밝혀진 글보다 더 많은 글을 쓰고 고하려 했으나 그것이 현실화되지 못했을 가능성도 간과할 수 없다.



는 여성과 어머니를 포함하여 여성 일반에게 모두 나타날 수 있는 감정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감정의 해소는 가정이라는 영역에 자신의 의무와 권리를 모두 붙들며 매고 살아가는 삶을 떨쳐내야 가능해진다. 이처럼 전혜린은 다른 위치나 상황에 놓인 여성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감정에 초점을 두고 해당 문제에 접근하고 있는데, 이는 그가 이 문제를 개인적 차원에 국한해서만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아가 전혜린은 남편이나 아이는 모두 “타존재(他者存在)”이며, 각자 “행복한 존재에의 의무”를 지닌 ‘실존’이자 ‘의식’임을 인정하고서 서로의 ‘인간’을 감금하거나 말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결론적으로 “타자(他者) 속에서 자기를 잊고 세계와의 관계를 끊고, 남의 짐과 노예가 동시에 되는 괴이한 <제2의 나>-부진정(不眞正)한 나와 대용품의 자아(自我)를 받아들이는” 결혼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설파한다.<sup>28)</sup> 여성은 주체인 남성의 결여이거나 아이를 위해 희생해야 하는 종속된 존재와 같은 비본질적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다. 다만 대다수 여성에게 주어진 ‘일’과 ‘품성’이 진정하지 못한 것일 뿐이다. 보부아르의 저서 『제2의 성』을 상기시키는 주장을 하는 데서도 알 수 있듯, 이러한 견해는 역사적으로 남성과 여성의 관계가 주체와 타자로 규정되어온 상황과 실존주의적 맥락에서 여성의 의식 각성과 투쟁을 촉구하는 보부아르의 논의와 궤를 이룬다.<sup>29)</sup> 그러나 남성과 여성을 하나의 유형으로 본질화/자연화하게 되는 구도에는 좀 더 거리를 두고 있는데, 이는 그가 애정을 가지고 바라본 여성들 혹은 문학 속 여성 인물들을 이해하는 방식 속에서 나타난다.

전혜린은 외국과 한국의 여성 작가들이 여성의 삶과 감정적인 동요를 그린 작품들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매일 매일 똑같은 회색하늘에 일순간 무지개가 뿔다가는 사라진다. 그러

28) 위의 책, 303~304쪽.

29) 변광배, 『제2의 성: 여성학 백과사전』, 살림, 2007, 107~119쪽; 시몬 드 보부아르, 조홍식 역, 『제2의 성』(상), 을유문화사, 1993, 9~31쪽.

나 아무 일도 일어날 수는 없으며 사람들은 끝내는 희망하는 것조차 잊고, 절망하기에조차 게을러지고, 피곤해지고 만다. 그때의 그들의 얼굴은 마치 짐승의 그것과 아무 다름이 없어지고 만다. 무표정(無表情)이 그것이다. 이렇게 매일을 덮는 회색 베일과 잠깐 떴다가 사라져버리는 무지개를, 외국의 수많은 여류작가들과 한국의 강신재(康信哉)씨 같은 분들이 끊임없이 섬세한 슬픔과 예지의 미소를 띄우고 묘사해 왔다.<sup>30)</sup>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 그는 수많은 여성 작가들이 일상에서 순간 번뜩이는 ‘자기’로 살고자 하는 의식을 재현해냈다고 본다. 여기서 눈길을 끄는 것은 강신재에 대한 관심이다. 이는 그가 외국문학에 경도되어 있고, 한국문학을 평가 절하했다는 그간의 평가를 재고하게 한다는 점에서 흥미롭다.<sup>31)</sup> 특정 작품명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인습과 제도로 고착화된 여성의 삶에 파문을 일으키는 내용과 삶의 굴레에서 솟아나는 비애의 감정을 서사화한 작품이라면 국내외 작가를 막론하고 관심을 보였다. 이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 흔히 사적 영역이라고 일컫는 가정에서 주로 일어나는 이 여성들의 드라마는 전혜린에게 그 어떤 문제보다 시급하고 중요한 최전선의 과제였던 것이다.

30) 전혜린, 『미래완료의 시간 속에』, 299쪽.

31) 전혜린의 글에서 한국 작가 또는 작품에 대한 생각을 발견하는 일은 쉽지 않다. 그의 일기에서 손소희(1961년 1월 25일의 일기), 강신재(1961년 11월 20일의 일기), 박경리(1964년 2월 28일의 일기)에 대한 언급이 단편적으로 나타났던 하나 창작에 대한 평가로 이어지는 내용은 찾지 어렵다(전혜린, 『미래완료의 시간 속에』, 68, 120, 161쪽). 이는 서양 작가의 작품에 대한 독서의 기록이 어렵지 않게 발견된다는 사실과 대조를 이룸으로써 한국문학과 문단에 대한 전혜린의 관심 정도가 낮았음을 방증하는 근거가 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도 본문의 인용문에 나타난 대목은 짧지만 의미심장하다. 한국문학이나 문단에 대한 그의 평가가 서구문학을 추종하면서 생겨난 선입견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나름의 준거가 적용된 판단으로 이해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물론 양과 질의 차원에서 발화한 내용이 적기 때문에 여전히 전혜린이 한국문학(또는 문단)에 대한 인식과 관계를 파악하는 일은 쉽지 않다. 다만 위의 언급에서 출발하여 전혜린이 수행한 독일 문학의 번역과 소개를 한국 여성문학에 대한 그의 이해와 연결하여 고찰할 가능성이 열렸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전혜린이 당시 다른 문인들과 비교했을 때 그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독일의 여성문학을 소개하고 번역하는 일을 수행했다는 사실은 중요하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이 투영된, 젠더 규범을 교란하는 의식을 사회적으로 생산하고자 했던 실천적 행위로 조명해야 한다. 그는 현대 독일 여성문학을 소개하면서, 독일문학이 세계적으로 알려진 데 비해 여성문학이 독자들에게 조명을 받지 못한 것은 독일의 봉건적 성격에 기인한 것으로, 독일 여성문학의 지적이고 예술적인 면을 많은 이들이 알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토로한다. 이들의 문학을 개관하면서 “정신적, 감각적, 육체적, 지능적인 온갖 생활에 있어서 여자의 권리를 주장하는 일종의 권리회복의 문학”으로서 “공부한 여자와 공부안한 여자가 다 같이 적어도 종이 위에서라도 새로운 낭만의 꿈을 실현하려고, 문학하기에 열중했었다”(32쪽)고 평가한다. 또한 전혜린은 영미 또는 프랑스의 문학과 달리 독일 여성문학이 한국에 널리 알려지지 않은 이유가 재미와 오락을 추구하지 않는 지성적 문학이기 때문이라고 논한다. 그는 독일 여성문학의 핵심이 “여자라는 상황이 주는 제한을 뚫고 나가서 세계와 자연의 신비의 인식에 지향”하는 데 있고, 이들의 문학이 “실존의 고뇌의 단계”(117쪽)에 와 있다고 평가하기도 한다.<sup>32)</sup> 독일 여성문학을 개관하

32) 전혜린은 『생의 한가운데』의 작가로 우리에게 친숙한 루이제 린저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잘 알려지지 않은 여성문인들을 지면을 통해 소개하였다(전혜린, 『현대 독일 여성문학의 경향: 정신적·감각적·육체적인 권리 회복』, 『자유문학』, 1960.11, 80~117쪽). 이 글은 전집 3권에 일부 누락된 상태로 실리는데, 제목 또한 『현대 독일 여류작가 22인상』으로 바뀌었다(전혜린, 『그래도 인간은 산다』(전집 3), 청산문고, 1968, 173~234쪽). 다음은 이 글에서 전혜린이 소개하고 있는 독일 여성작가이다.

역사와 문학	리카르다 후흐(Ricarda Huch), 엘리카 한델 마체티(Enrica von Handel-Mazzetti), 이나 자이델(Ina Seidel)
신앙과 문학	게르트루트 폰 르 휘오르(Gertrud Von Le Fort), 루트 샤후만(Ruth Schaumann), 엘리자벨 랑게싸아(Elisabeth Langgasser)
향토와 문학	파울라 그록가아(Paula Grogger), 마르그레테 쾰루 벤틀라게(Margarete zur Bentlage), 클라라 휘이벳히(Clara Viebig), 헬레네 휘이크트 디데리히(Helene Voigt Diederich), 아그네스 미이겔(Agnes Miegäl), 루루 폰 슈트라우스 운트 토르나이(Lulu von Strauss und

는 참고할 만한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외국인 전해린이 이를 분류하고 의미 부여를 했다는 점에서도 그의 남다른 의지를 느낄 수 있다. 이를 통해 전해린이 동시대 독일 여성문단을 분류하고 개관하여 소개하는 이면에는 한국 사회의 여성의 삶과 지위가 변하기를 촉구하는 마음, 나아가 그 변화를 추동하고 재현하는 한국의 여성문학이 여성의 권리 회복과 실존 문제를 풍요로우면서도 예각적으로 그려내길 바라는 마음이 자리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나아가 여성문학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전해린 또한 ‘자기’를 실현하고자 했던 길로, 글을 읽고 쓰는 행위와 끊임없이 삶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리라는 의지를 더욱더 강하게 키워나갔던 연유를 이해할 수 있다.

한편 여성의 삶에 대한 관심과 여성을 비본질적 존재로 보이게 만드는 사회적으로 규정된 여성성에 대한 반감의 씨는 유년기에서부터 배태된 것이었다. 선행 연구에서 전해린의 유년 시절은 주로 아버지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이해되어 왔다. 전해린은 유복한 가정환경 속에서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공부에 전념할 수 있었는데, 이를 가능하게 한 데에는 부친인 전봉덕의 영향력이 컸다. 그의 도저한 지적 열망은 이와 같은 아버지가 만들어준 세계 속에서 구축된 것으로 이해되었다.<sup>33)</sup> 이는 지식과 이상을 중요하게 여기고 책과 학문의 세계를 일깨워준 아버지를 신처럼 숭배했다는 작가의 언급을 통해서도 뒷받침된다. 그와 같은 지적에 대해 충분히

	Torney)	
사회와 문학	아네티 콜프(Anette Kolb), 게르트루트 보이마아, 안나 제가아스(Anna Seghers), 이름가르트 코인(Irmgart Keun)	
전쟁의 체험과 그 극복 1. 제2차 대전 후의 독일 여류문학	<시문학>	마리아 루이제 폰 카슈닛츠(Marie Luire uon Kaschnitz), 잉게보르크 밧하만(Ingeborg Bachmann), 게르트루트 콜마아(Gertrud Kolmar)
	<산문학>	루이제 린자아(Luise Rinser), 게르트루트 훗세넛가(Gertrud Fussenegger), 알라 안드레에(Illa Andréae), 자니이 에프나(Jeannie Ehner)

33) 이동하, 앞의 글, 308~312쪽; 장순란, 앞의 글, 153쪽; 천정환, 『처세·교양·실존: 1960년대의 ‘자기계발’과 문학문화』, 『민족문학사연구』40권, 민족문학사학회, 2009, 112~116쪽.

공감하면서, 여기에서는 그동안 간과되어 왔던 어머니와의 관계를 통해 전혜린의 내면 풍경을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다. 부친의 영향을 살펴볼 때 주로 참고 자료가 되는 글인 『홀로 걸어온 길-아스팔트 킨트의 계보』의 본래 제목은 『유년시절의 추억 한 장』(『Fides』, 1964.11)이다. 이 글은 전집에 수록되면서 삭제된 부분이 상당한데, 그 부분이 대체로 어머니에 대한 내용이라는 사실은 의미심장하다. 자료 소개라는 차원에서 다소 길지만 인용해보도록 하겠다.

나는 學校에 갔다 오면 늘 그곳(중국인촌: 인용자)에 갔다. 그리고 하늘 높이 솟은 포푸라 나무 밑에 앉아서 사탕수수를 씹으면서 空想에 잠겼었다. 집에 가도 늘 엄마는 안 계셨다. 婦人會니 뭐니 나가는 데가 많은 엄마는 『有志』였다. 나는 食母와 단 둘이 있는 것이 싫었다. 보라색 레이스 원피스에 보라빛 모자를 쓴 젊은 엄마는 서양 여자처럼 아름답게 보였다. 그러나 어머니의 눈빛은 찼다. 어머니는 화를 잘 냈다. 나와 내 동생 채린이는 늘 어머니를 무서워 했다. 아직 어렸던 채린이는 神經質이어서 잘 울었다. 나는 채린이가 우는 것이 제일 무서웠다. 울 때마다 어머니의 매는 사정 없이 채린이에게 떨어졌고 그러면 채린이는 더욱 소리를 크게 내고 울었다. 채린이의 그 때는 동그랗게 살이 붙었던 귀여운 얼굴과 聰明이 가득 찬 커다란 눈을 보고 나는 언제나, 저런 귀여운 아이를 어떻게 때릴까? 하고 마음속으로 어머니를 미워했다. 매에 대한 나의 뿌리 깊은 憎惡는 아마 그 때에 비롯한 것 같다. 어떤 理由가 있어도 나는 사람이 사람을 때려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마치 사람이 사람을 死刑해서는 안되는 것처럼……. a priori 하게 人間에게는 그럴 權利가 不在하는 것이 아닐까? 어머니의 얼굴에도 그러나 微笑가 떠오를 때가 있었다. 그런 날이면 天國이었다. 나와 채린이는 참새들처럼 즐거워했다. 어머니가 미소하는 것은 通知表 받는 날과 賞狀 받는 날이었던 경우가 많다. 나는 어머니가 웃는 것이 보고 싶어서 열심히 공부했다. 知識을 몸시 높이 評價하는 Idealist인 아버지는 언제 나나를 자랑스럽게 여기시고 귀여워해 주셨다. 長女인 나는 學校에도 아버지가 종종

데리고 갔고 理髮所에도 꼭 아버지가 데리고 가서 머리를 깎는 것을 지켜 보셨다. 白露西亞人の 洋服店에서 꼭 「小公女」가 입을 것 같은 흰 레이스 원피스를 사 준 것도 아버지였다. 3·4세 때부터 한글책과 日語책을 전부 일게 손수 가르쳐 주신 아버지는 내가 공부 이외에 딴 일을 하는 것을 허락 안하셨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계실 때는 나에게 심부름 한번 못 시켰다. 손에 물 하나 안 튀기고 내 방에서 공부만 하는 것— 아버지가 한없이 아낌없이 사다주는 책을 읽는 것 이것이 내 生活의 全部였다. 이 幼年期의 습관은 中, 高, 大學生, 시절을 통해 죽 堅持되었다. 내 한마디는 아버지에게는 Kategorischer Imperativ(!)고 나는 또 젊고 아름다웠던 남들이 天才라고 불렀던 아버지를, 그리고 나를 無制限하게 사랑하고 나의 모든 것을 무조건 다 gut heiBen 한 아버지를 神처럼 崇拜했었다. 나는 엄마와는 아무런 Kommunikation이 없었다. 커서도 엄마는 나의 남루한(?) 복장 취미에 심미안이 상처되어 나를 미워했고 동생들과 백화점 영화관 미장원 등을 같이 다니면서 나에게는 못채운 「女子들의 재미」를 나누었다. 확실히 엄마의 눈에는 하루 三時間 밖에 안 자고 「남자처럼」 공부만 하는 高等學生, 大學生 시절의 내가 Monster로 보였으리라. 나는 spoiled child였다. 나에게 대한 偏見 때문에 엄마와 아버지가 자주 말다툼한 것을 보아도 그것을 알 수 있다. 物質, 人間, 肉體에 대한 輕視와 精神, 觀念, 智識에 대한 狂的인 崇拜, 그리고 내 內部에서의 그 兩世界의 完全한 分離는 그러니까 거의 嬰兒期부터 내 속에 짝트고 지금까지 나에게 붙어 있는 Krankheit인 것이다.<sup>34)</sup> (밑줄: 인용자)

34) 이 글은 전혜린의 대표적인 글 중 하나로 많은 논자들에 의해 언급된 바 있다. 전집 1권(『그래도 아무말도 하지 않았다』에 「홀로 걸어온 길-아스팔트 킨트 (Asphalt-kind)의 系譜」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다(24~29쪽). 이 글의 본래 수록된 지면은 다음과 같으며, 인용 부분에서 밑줄 친 부분은 모두 단행본에서 누락된 부분이다(전혜린, 『유년시절의 추억 한 장- meinem Vater gewidmet-』, 『Fides』, 1964.11, 90~91면). 서지사항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언급과 내용 분석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 참조. 이행미, 앞의 글, 421~430쪽.

밀줄 친 부분을 통해, 어렸을 때 전혜린이 아버지에게 대한 애정과 두려움만큼이나 어머니와의 관계에서도 양가적인 감정을 지니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964년의 시점에서 과거를 회상하는 것이므로 기억이 왜곡될 여지가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이 글에서 그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마치 사회적으로 규정된 여성성과 남성성을 대변하는 존재처럼 묘사되고 있다. 어머니는 화려한 복장으로 치장하고, 쇼핑과 오락을 즐기는 삶을 살아가며, 그러한 삶은 “여자들의 재미”를 추구하는 것으로 분류된다. 그에 비해 외모를 가꾸거나 꾸미는 일에 전혀 관심이 없고 오로지 공부에 열중하는 전혜린의 모습은 어머니에게 “남자처럼” 보였으며 그 모습은 마치 ‘몬스터’와 같았으리라고 생각한다.<sup>35)</sup> 이때 ‘괴물’로 자기를 정체화하고 있는 시선은 어머니를 비롯한 타인이 자기를 바라보는 시선인 동시에, 스스로 정상성의 테두리 밖에 놓이고자 하는 욕망을 포기하지 못하는,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고 있는 1964년의 작가 의식의 투사로도 읽힌다. 전혜린에게 있어 어머니는 정신, 관념, 학문으로 대변되는 아버지의 세계와 구분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 구분에는 결혼과 출산 등 여성의 소임으로 주어진 것들을 해나가야 했던 자신의 삶에 대한 불안과 동요, 환멸 등의 복잡한 감정이 응축되어 있다. 이는 이 글을 실존하는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대한 기억을 넘어 젠더 규범을 둘러싼 전혜린의 판단과 인식으로 읽게끔 한다.

35) 이 글에서 어머니가 동생에게 체벌을 가하거나, 어머니가 집에 있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표하는 것을 통해 어머니를 모성애가 부족한 모습으로 기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혜린은 사회적으로 규정된 여성성을 비판하고 아이와 부모 사이가 서로 타자라는 사실을 지각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모성애를 전적으로 부정하지는 않는다. 맹목적이거나 감정에 치우친 간섭과 애정은 배격했지만, 아이의 양육 문제에 대해 고민하지 않는 것은 아니었다. 그런 점에서 ‘경험’을 통해 생겨난 모성애를 본능과는 다른 문제로 이해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혜린의 일기에 기록된 어머니는 단일한 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어렸을 때 모성애를 받지 못한 채 자라났기에 그에 대한 동경을 지니고 있다는 기록은 인용문의 글과 연결되는 면이 있다(1959년 1월 9일의 일기. 전혜린, 『이 모든 괴로움을 또다시』(전집 2), 66~68쪽). 하지만 다른 일자의 일기에서는 어머니의 보살핌에 감사함을 표하면서 아버지보다 가치가 있는 존재로 적기도 한다(1959년 3월 11일의 일기. 전혜린, 『미래완료의 시간 속에』, 139~140쪽).

흥미로운 점은 여성이지만 여자답지 않고 ‘남자와 같은’ 모습처럼 보이는 삶을 추구했던 그가 사회적으로 고착된 젠더 규범에 순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전혜린의 지적 고투가 어머니의 세계에서 아버지의 세계로 나아간다는 것은 여성이지만 사회적으로 부여된 ‘남성성’을 지향하는 것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 글에는 아버지의 세계보다 우위에 자신의 위치를 놓고자 하는 시선 또한 나타난다. 지식과 학문의 세계를 접하게 해 준 아버지를 신과 같이 숭배하면서도, 그의 말이 아버지에게 정언명령이 되는 데에 일종의 쾌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내 한마디는 아버지에게는 Kategorischer Imperativ(!)”과 같은 대목은 이를 잘 보여준다. 이 양가적인 감정은 여성성과 남성성이라는 사회적으로 부여된 젠더를 거부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여기서 나아가 ‘자기’ 내부에서 양자가 종래의 규범을 따르지 않고서 자유롭게 교차하고 경합하며 재배치되는 데 대한 관심으로 이어진다. 이는 전혜린의 삶과 문학에서 발견되는, 소위 ‘남성성의 영역’이라 하는 경계를 넘나드는 여성들에 대한 관심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

### 3. 여성성과 남성성의 경계를 넘나드는 여성들

전혜린의 글을 따라 읽다 보면 그가 현실 생활에서 애정을 가지고 부르는 존재들 대다수가 여성이라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이들을 향한 이 감정에는 그들이 자신과 마찬가지로 ‘참된 자기’로 살아야 한다고 의식하는 존재, 혹은 그와 같은 의식이 생겨날 가능성이 잠재된 존재라는 생각이 전제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한국전쟁 당시 피난지 부산에 머무를 때도, 독일 뮌헨 유학 중에도 여러 차례 편지를 보낸 동생 전채린을 향한 애정에는 그가 자신과 마찬가지로 문학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존재라는 인식이 선명하게 나타난다. 가령, 한 편지에는 카뮈의 『이방인』을 추천하면서 자신의 감상



과 해석을 독후감을 방불케 할 정도로 길게 서술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동생을 같은 책을 읽고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존재로 간주하고 있는 태도가 여실히 드러난다.<sup>36)</sup> 그 밖에도 동생에게 보낸 편지에는 자신이 읽은 책을 여럿 소개하고 심지어 습작과 같은 시편을 적기도 하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또한 전혜린이 여고시절을 아름답게 추억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문학을 향한 애정을 함께 나누는 주혜라는 절친한 벗이 있었기 때문이다. 주혜와의 관계는 아버지가 제시한 법학도의 길을 벗어나 문학을 공부하기 위해 낯선 독일로 떠날 수 있게 하는 동력이 되기도 했다.<sup>37)</sup> 전혜린이 이들을 마치 자신의 ‘분신’처럼 여기며 유대감을 느끼는 데는 문학을 읽고 글을 쓰는, 공부하는 여성이라는 공통분모가 존재한다. 이들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은 사적인 교유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기는 하나, 이와 더불어 전혜린의 가치관을 살펴보게 하는 의식적인 행위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sup>38)</sup>

이는 전혜린이 쓰거나 번역한 글을 통해서도 공통적으로 발견된다. 전

36) 채린에게 보내는 편지(부산, 1953. 8.17). 전혜린, 『미래완료의 시간 속에』, 234~238쪽.

37) 이 글의 J는 문학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는 동시에 결혼생활에 대한 부정적인 뜻을 공유하기도 하는 친구이다. 단행본에는 ‘주혜’이지만 원문에는 ‘J’라고 적혀 있다(전혜린, 『이십대와 삼십대의 중간 지점에서』, 『여원』, 1962.12, 68~69쪽). 전혜린이 독일 유학을 결행하는 데 있어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친 것도 주혜이다. 법대 3학년에 재학 중이던 전혜린에게 독일에 갈 의향을 먼저 묻고, 아버지의 독일인 친구에게 서신을 통해 전혜린을 소개하는 매개 역할을 했던 것이다(전혜린, 『나의 독일유학생활기』, 『여상』, 1963.3, 349쪽).

38) 이와 같은 맥락에서 여성성과 남성성에 대한 전혜린의 인식은 아버지의 세계를 동경하면서도, 여성에 대한 그리움과 동경을 무의식이라는 심층의 차원에 가지고 있다는 논의(장순란, 앞의 글, 159쪽)만으로는 충분하게 이해되기 어렵다. 선행연구가 그의 생애사적 맥락과 삶에서 비롯된 무의식에 초점을 두는 것과 관점을 달리 하여, 이 논문은 ‘의식의 차원’이라는 다소 소홀히 다루어졌던 면에 좀 더 주목하고자 한다. 전혜린이 추구하고자 했던 ‘자기’ 추구라는 의식적 행위에는 무의식적 지향과 사회적 한계들이 서로 경합하는 듯한데, 이는 그의 글에서 일부 모순적으로 보이는 내용이 함께 서술되고 있음을 통해서도 추단할 수 있다. 이 논문은 이러한 균열의 면모를 일부 짚어보고는 있으나, 전혜린이라는 한 개인의 사유를 총체적 차원에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지면을 통한 전면적인 고찰이 필요하다.

혜린은 여성 작가의 작품 속 여성 인물에 대한 공감을 통해 사회적으로 ‘남성적인 것’으로 여겨져 온 특성이 그들의 본질도 전유물도 아니라는 사실을 전하고자 했다. 대표적인 예가 루이제 린저의 『생의 한가운데』를 번역하는 일이다. 1961년 1월 7일의 일기에는 『생의 한가운데』와 같은 책을 쓰거나 번역하는 일이 자신의 내면에서 나온 ‘순수한 명령’이라고 적혀 있다. 결국 이 같은 책을 쓰지는 못했지만 그해 번역서가 출간된 정황을 볼 때 자신의 목표를 어느 정도는 달성했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눈에 띄는 것은 그가 번역 행위를 ‘세계에서의 자신의 위치를 의식하게 해주는 노동’으로 의미화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꿈꾸는 것 외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인텔리가 되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이 책의 번역을 결심하고 있다.<sup>39)</sup> 『독일전후문제작품집』(1961)의 수록작으로 독일 내에서도 문학사적 정리가 되지 않은 이 소설을 선정한 주체가 번역자 전해린이라는 사실도 그의 번역 행위가 얼마나 의식적인 행위인지를 방증한다.<sup>40)</sup> 기실 『생의 한가운데』는 당시 여성 독자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여권인식과 남녀 관계를 재인식하는 데 있어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했다. 그렇다면 전해린의 번역 행위에 내포된 목표는 어느 정도 달성했다고도 볼 수 있다.<sup>41)</sup> 그의 번역 행위가 개인의 정신적 차원의 만족에 머무르지 않는 사회적 차원의 의미를 획득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소설을 매개로 전해린이 한국 사회에 던지고 싶었던 메시지가 무엇인지 구명하는 일은 중요하다.

전혜린은 『생의 한가운데』의 주인공 ‘나나 부슈만’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여자이며 남성적인 재능과 명성을 지닌 소설가이며, 동시에 여성적인 매력으로 풍요하게 장식”된 인물로 “언제나 순간마다 판단을 내

39) 1961년 1월 7일 일기. 전해린, 『미래완료의 시간 속에』, 44쪽.

40) 박숙자, 『여성은 번역할 수 있는가: 1960년대 전해린의 죽음을 둘러싼 대중적 애도를 중심으로』, 『서강인문논총』 제38집, 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3, 24~26쪽.

41) 이행선·양아람, 『루이제 린저의 수용과 한국사회의 ‘생의 한가운데’- 신여성, 인생론, 세계여성의 해(1975), 북한바로알기운동(1988)』, 『민족문화연구』 73권,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16, 272~276쪽.

리는 “본래적인 성실성”을 지녔다. 전혜린은 린저가 니나리는 인물을 통해 “현대의 지성계급에 속하는 여자가 자기의 의식의 세계를 주위와의 분쟁 속에서 얼마나 지킬 수 있는가”를 시험해보았다고 평가한다.<sup>42)</sup> 서사 내에서 ‘니나’는 보통의 가정을 꾸려 평범한 삶에 안주하고 싶은 욕망에 순간적으로 사로잡혀 결혼을 하고, 몇몇 남성들과 순간적인 만남과 연애 관계를 갖기도 하며, 현실이나 기성관념에 타협하지 않는 강한 결단력과 행동력을 보이기도 한다. 전혜린은 이와 같은 니나의 모습에서 ‘자기’를 추구하는 문제와 젠더 규범의 관계를 읽어낸다. 일례로 퍼시가 “정신과 감수성이 결여”되어 있음을 잘 알면서도 니나가 그와의 결혼을 선택하는 부분에 대한 진술을 들 수 있다. 그는 니나의 이 같은 선택이 “부드럽게 복종하고 싶었고 약간의 폭군적인 데가 있는 남편을 섬기는 결혼 생활을 믿고 싶었”기 때문이지만, 그것은 “자기자신의 너무나 분명한 정신의 모험과 자유에의 강한 충동에 대한 무의식적인 자기 방어”일지도 모른다고 말한다.<sup>43)</sup> 이와 같은 분석은 소설에 대한 해석이지만, ‘자기’를 추구하는 문제가 사회적으로 구성된 젠더 규범의 내면화에 저항함으로써 가능하다는 전혜린의 인식과 궤를 같이한다. 사회적으로 구성된 여성성을 추구하는 욕망이 발현될 수도 있지만, 이는 자기의 정신과 자유라는 가치와 만나지 않는다. 그렇기에 이를 거부하는 것은 ‘참된 자기’를 만나는 도정이자 현실과의 불화라는 위험을 무릅쓰는 의지적 행동이 된다.

전혜린은 이러한 인물이 남성과 여성에게 부여된다고 여겨지는 전형적 성격을 한 데 가지고 있으나, 어디까지나 제일 핵심적인 것은 성차를 떠난 ‘자기’라고 보았다. 루이제 린저가 니나의 삶을 통해 “자기를 넘은 곳으로 자기를 내던지려는 시도의 세계 속에 자기를 참가시키려는 숭고한 의도”를 보여준다고 이해하면서, 이러한 기투(企投)가 없다면 성별을 막론하고 결코 행복에 이를 수 없다고 말하는 대목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

42) 전혜린, 『문계성을 찾아서: 참신한 형식의 문학』, 『독일전후문제작품집』, 신구문화사, 1961, 387쪽.

43) 전혜린, 『현대의 이브』, 『전후문학의 새물결』, 신구문화사, 1962, 84쪽.

준다.<sup>44)</sup> 이처럼 전혜린은 ‘니나’를 조명하면서, 남성과 여성이라는 성차를 통해 권리와 의무, 행복과 불행, 성격 등이 확정되는 것에 반대하고, 중요한 것은 오직 ‘자기’일 뿐임을 강력하게 피력한다.

니나는 男性的인 強함과 決斷性을 지닌 여자다. 따라서 冒險- 그 어떤 성질의 것이든 간에 자기가 선택하기만 하면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 이렇듯 린자야가 주장하는 것은 性에 있어서의 여자의 主體性 維持인 것 같다. 남자와 똑같이 일하고 自活하는 여자로서 남자와 똑같이 우연적인 情事 긴장 회복을 위한 정력의 발산, 유흥의 분위기 속에 잠수해 보는 것... 이러한 原則을 그는 마지막 結果까지 다 담당하는 책임 있는 決斷性을 가지고 받아들이는 태도를 린자야는 여자에게 허용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모든 여자에게 다 허락하고 있는 것은 물론 아니다. 「너는 강하니까 생은 너에게는 그런 걸 허락할 수 있을 것이지만 다른 여자라면..... 나는 다른 여자가 아니야.」 <同上 一七三>

#### 4. 職業의 問題

대학생 시절부터 니나는 직업을 갖고 있었고 (강요된 셈이었지만) 장래에도 가질 것을 희망했다. 「공부를 계속하겠어요. 그리고는?」 라고 나는

44) 위의 글, 88쪽. 『현대의 이브』는 루이제 린저의 『생의 한가운데』와 관련된 상세한 분석이 뒷받침된 평문의 성격을 띤 글이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을 요한다. ‘사랑의 문제’, ‘결혼의 문제’, ‘에로티시즘의 문제’, ‘직업의 문제’로 장을 나누어 살펴보고 있는 이 글은 전집에 수록되면서 『생의 한가운데서-‘니나’의 경우』로 개제(改題)되었다(전혜린, 『생의 한가운데서-‘니나’의 경우』, 『그리고 아무말도 하지 않았다』(전집 1), 197~210쪽). 최근 김미정은 한국의 루이제 린저 수용의 면면을 들여다 보면서 전혜린의 이 글을 유고 에세이로 남은 비공식적 평가로 다루고 있다. 『독일전후문제작품집』에 수록된 글과 대조를 통해 균열을 살펴봄으로써 젠더 문제를 공적으로 발화하기 어려웠던 당대 공론장의 현실에 대해 논하고 있다. 그런데 논의의 전체적인 문제의식에는 공감하는 바가 크나, 전혜린의 이 글이 공식적 지면을 통해 발화되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싶다. 나아가 필자의 견해를 참고할 때, 젠더 문제를 공식적으로 발화하고 있는 이 글의 문제성은 더욱 커진다고 하겠다. 김미정, 『여성교양소설의 불/가능성-‘한국-루이제 린저’의 경우(1)』, 『문학과 사회』 제116호, 문학과지성사, 2016.12, 71~76쪽.

물었다. 그리고는? 그리고는 나는 직업을 갖겠지요. 그리고 일하고 여가에 어찌면 글을 쓸 거예요. 그리고— 그리고는 살 거예요. 갑자기 나나의 눈은 빛났다. 그리고는 살 거예요. 라고 나나는 명확히 결심이 보이는 목소리로 말했다. (同上 二〇一) 「아주 정직하게 말한다면 나는 글을 쓰겠다는 욕망 이외에는 아무 욕망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sup>45)</sup>

위의 인용에서 나타나듯 전혜린은 당대 ‘남성성’으로 분류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자기화하는 여성이야말로 주체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때 주목할 점은 그것이 직업을 가지고 있고 공부를 하며 글을 쓰는 삶에 국한되지 않으며, 사회에서 통용되는 상식이나 윤리적인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에도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생의 한가운데』의 나나는 몇몇 남성들과 순간적인 감정이나 우연적인 계기에 의해 깊이 고민하지 않고서 육체적 관계를 갖는다. 전혜린은 이에 대해 린저가 자신의 행동의 결과를 감당할 수 있다면 가능한 것, “남자와 똑같이 일하고 자활하는 여자”라면 허용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해석한다.

한편 이와 유사한 인식은 전혜린의 다른 산문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그 점에서 인용된 부분은 린저의 의도를 해석한 것인 동시에 전혜린의 문제의식이라고도 볼 수 있다. 전술했다시피 그는 남성 중심적인 사회가 계속되면서 남성은 ‘변화’를, 여성은 ‘지속’을 함의로 갖는 역할을 부여받았고, 이를 내면화하면서 남성은 ‘변화’에 뒤따르는 ‘방황(방랑)’을 내적 요구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었다고 분석한다. 언뜻 볼 때 이는 남자 다음을 “방랑의 여유와 꿈이 있다”는 데서 찾으면서 그들의 행동에 제재를 가하거나 질타할 수 없는 여지를 주는 듯하다. 하지만 이 글은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 또한 ‘방황’하는 존재가 아니냐는 반문으로 이어진다.<sup>46)</sup> 전혜린은 ‘생’은 계속 흘러가며, ‘자기’는 순간에 따

45) 인용문은 ‘에로티시즘의 문제’라는 항목의 진술된 내용의 일부이다. 전혜린, 『현대의 이브』, 86~87쪽.

46) “그러나 남성을 우리는 탓할 수 있을까? 솔직히 말해서 여성은 방황하지 않습니다

라 살아있음을 느끼는 존재로 여긴다. 그는 여성성과 남성성이 ‘영원한 본질’이 아니듯 각 개인의 삶은 그 내포는 다를지라도 어떠한 방향에서든 ‘방향’과 ‘변화’가 허용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렇다면 전혜린이 사회적 규범과 제도를 넘나드는 행동과 거기에 구속되지 않는 영혼을 옹호하는 것을, 그의 현저한 인식욕과 정신적 가치에 대한 지향이 투사된 것으로만 평가하는 것은 다분히 일면적이다. 이러한 기질이 오랫동안 남성의 전유물로 여겨져 왔다는 데 대한 문제의식에 기반을 둔 견해이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여성의 사회 진출 확산과 사회경제적으로 독립성을 갖출 수 있는 기반을 획득해 나가는 최근의 변화를 (무)의식적으로 거부하는 남성들에 대한 비판이 함축되어 있기도 하다. 보다 진보된 사회적 흐름을 인지하면서도 여전히 여성을 “정다운 나의 집”에 머무르는, 변화의 흐름에 영향받지 않는 ‘영원한 여성’으로 두고 싶어 하는 남성의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향한 비판이 기저에 자리한다.<sup>47)</sup>

전혜린의 이와 같은 사유는 여성해방의 대표적인 상징으로 여겨져 온 ‘노라’에 대한 재해석을 통해서도 나타난다.<sup>48)</sup> 그는 ‘나나’에 대한 긍정적

까?”라는 등 마지막 부분은 ‘-습니다’체로 어미의 변화가 나타나면서 『여성』을 읽는 여성 구독자들을 향해 질문을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여기에는 그의 견해를 여성 독자들에게 전달하면서 그들의 생각을 일깨우고자 하는 의도가 있어 보인다. 전혜린, 『남자/ 그 영원한 보헤미안』, 『여성』, 1963.8, 89쪽.

- 47) “이와 같이 여성이 보다 진정해지고 보다 자기에 충실해질수록 그 상태는 기묘하게도 남성의 반감을 사게 되는 것 같다. 경제를 온통 남자에게 의존하면서 유일의 재산인 예교와 미모로 남자를 리드하던 시대보다 남녀간의 드라마는 심각을 더해 가는 것 같다. 사실이지 법복(法服)에 흰 가발을 쓴 법관의 여인이나 일개 연대를 호령하는 아내, 우주비행선에 서슴없이 타 보는 여인…… 이런 여성군을 어떤 남자가 아무 주저 없이 포용할 수 있을 것인가? 기묘한 적의와 자기영도를 침범당한 자가 느끼는 원한 감정을 남성은 자연히 느끼게 될 것이다.”(위의 글, 87~88쪽). 한편 이 글에는 이와 같은 비판적 접근과는 결이 다르게 해석될 소지가 있는 진술 또한 발견된다. 가령, 남성과 여성이 같은 일을 하게 되면 서로에 대한 호기심이나 정열이 사라지고 동료에만 남을 것이라든지, 방랑하지 않는 규격화된 삶을 사는 남성은 남성답지 않기 때문에 소름끼친다는 진술이 있다(위의 글, 88~89쪽).
- 48) 근대 초기 한국문학에 수용된 노라는 봉건적 인식에 저항하며 자아 각성을 주장하는 존재였다. 그러나 해방 후 젠더 서사에서 노라는 민족과 국가를 위해 가출함으

평가와는 대조적으로 ‘노라’에 대해서는 통렬한 비판을 가한다. 문학 속 주인공이 현대 상황에 처해진다면 어떠할지를 묻는 특집 기사의 일환으로 쓰인 이 글에서 여성 해방의 대명사였던 노라는 비판력을 갖추지 못한 무자각적 존재로 전도된다. 남성 작가인 입센이 여성 문제를 다루고 노라의 편에서 분격해주었다는 사실 외에는 아무런 감명을 주지 않는다면서, 현대의 시점에서 보았을 때 노라가 어떤 문제를 가졌는지 열거한다. 그는 노라가 남편이 싫어한다는 이유에서 하고 싶은 말을 참고, 귀여움을 얻기 위해 치장을 하거나 애교를 부리는 등 자신을 감추고 연기하는 모습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한다. 작중 노라의 대사처럼 그것이 사회적으로 요구된 여성상임은 알겠으나, 현대의 노라라면 이 같은 행동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애정의 절대성에 근거하여 문서를 위조했다고 하지만, 이에 대해 남편과 상의하지 않은 것과 사랑을 위한다면서 자의에 따라 범죄를 저지른 것도 문제라고 지적한다. 전혜린은 오히려 법률가인 헬머가 자신의 명예를 실추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면 공감함을 표하기도 한다.

인물에 대한 이 같은 전혜린의 평가는 주체성의 견지 여부를 준거 삼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헬머의 의무와 책임, 노라를 대하는 태도를 크게 염두에 두지 않는 이러한 평가는 사회적으로 규정된 역할과 제도화된 억압이 한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막대한지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 이는 시대적인 맥락에서 어느 정도 용인할 수 있지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대단원을 장식하는 노라의 대사, 즉 인간으로서 자신을 각성하는 그 대목에 있다고 지적하는 데서도 발견된다.

그러나 이보다도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저 유명한 노라의 대사들이다.

---

로써 여성 해방을 넘어선 조선 민족 전체의 해방을 상징하는 존재로 재현되었다. 임미진, 『1945~1953년 한국 소설의 젠더적 현실 인식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7, 52~66쪽; 전지니, 『8.15 해방과 ‘노라’ 이야기- 최의순의 『노랑이집』, 정비석의 『안혜의 향의문』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55집,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12, 175~201쪽.

헬메르가 남편과 아이에 대한 노라의 의무를 환기시킬 때 노라는 말한다. 「나는 보다 신성한 다른 의무를 가졌어요.— 나 자신에 대한 의무예요.」 또 「무엇보다 앞서서 나는 인간이에요. 당신과 똑같은…. 적어도 인간이 되려고 하고 있어요.」 이 대사는 한 세대를 풍미한 유행구가 되었다. 그러나 현대의 노라가 살았다면 이런 카타스트로프를 불러 일으키기 전에 아니 도 대체 결혼하기 전에 「人間」이 되려고 시도했을 것이다. 자기의 모자라는 논리도 最良으로 믿었던 일이 그렇지 않게 되었을 때 자기의 선의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객관적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해서 모든 상황을 있는 그대로 내던져 둔 채 나만 없으면 될까 아니예요?」의 태도에는 현대의 노라는 결코 찬성하지 않을 것이다. 애정을 믿었고 가정의 행복을 신앙처럼 존중한 점으로는 十九세기의 原型 노라가 현대의 노라들 보다 순수할 것이다. 그러나 批判力과 사고의 논리성에 있어서, 그리고 결혼전의 自己完成의 수양에 있어서에는 현대의 노라가 훨씬 우월하다고 나는 생각한다. 타자속에 완전히 자기를 소외시켜버린 노라의 생활방식과 存在現實은 非眞正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 非眞正에서는 아무것도 나올 수가 없다. 근본적인 實存的인 자각이 아니고 노라의 최종의 선언은 어디까지나 他者依存者만이 품는 外界나 대상에의 원한감정의 냄새가 풍기고 있다.<sup>49)</sup>

전혜린은 현대의 ‘노라’라면 남편의 변화를 계기로 자각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결혼하기 전에 ‘인간’이 되려고 시도해야 한다고 말한다. 또한 감정에 치우치지 않는 “비판력과 사고의 논리성”이야말로 여성의 독립과 해방을 주장하는 오늘날의 여성에게 걸맞은 자질이라고 본다. 과거의 ‘노라’가 ‘여성성’이라는 관념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각성이 이루어졌다면,

49) 전혜린, 「『노라』는 出家하지 않는다.」, 『세대』, 세대사, 1963.11, 193쪽. 이 글은 『세대』에 「옛세이 특집: 이 주인공들이 현대상황에 처해진다면」에 실린 글이다. 이 특집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실렸다. 「『전쟁과 평화』와 3차대전」(홍사중), 「중공의 『아Q』」(장기근), 「라스콜리니코프와 쏘니아」(장경학), 「노라」는 가출하지 않는다」(전혜린), 「『월』가의 사일록」(박종철), 「새로운 아메리카의 비극·클라이드」(노희엽), 「줄리앙·쏘렐은 또 패배할 것인가」(고영복)



오늘날의 여성은 그 범주를 초과하여 ‘남성성’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되어 온 이성적이고 분석적인 판단능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주장에는 결혼, 애정, 가정 문제로 좌지우지되지 않는 ‘자기’가 중심에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담겨 있다. 오늘날 여성의 삶이 진정성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노라’와 같은 인식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인간’임을 자각하는 데에 머무르지 않고, ‘어떤 생활’을 해나가야 할지 이성적으로 사고해야 하며, 보편적인 인간이 아닌 ‘나’라는 단독자로서의 자기를 발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기에 노라는 굳이 집을 나갈 필요가 없다. 그의 각성은 외부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부적인 변화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타자의존적인 삶을 버리겠다는 내면의 변화를 시도하고 현실의 제 문제를 고려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더욱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아무런 대책도 없이 충동적으로 무작정 집을 나가는 행동은 이성적인 오늘날의 여성에게는 찾기 어려운 행동으로,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의 ‘노라는 출가하지 않는다’는 제목은 출가할 필요가 없다는 뜻을 담고 있다.<sup>50)</sup>

50) 이와 같은 ‘노라’에 대한 전혜린의 해석은, 직접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여성을 가정 내 존재로 여기는 구획을 더욱 견고화할 우려가 있다. 남성과 동등하게 대화하고 자신의 의견을 내놓을 줄 아는 배우자로서의 여성상은 ‘이상적인 근대적 가정’을 구성하는 요소이기도 하다. 여성의 자각 필요성 혹은 자각한 여성에 대한 긍정의 대적점에 있는, 그와 같은 삶을 선택하지 못하거나 선택하기 어려운 여성을 향한 섬세한 인식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도 지적할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노라는 출가하지 않는다’라는 제목은 출가하지 ‘못하는’ 삶의 불가피함에 대한 세심한 이해가 부재함을 드러내는 제목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전혜린의 노라에 대한 평가는 선행연구에서도 누차 지적되었던 엘리트 여성으로서 견지한 인식적 한계와도 연결된다. 모든 여성에게 불가피한 문제를 논하려고 시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와 같은 결론으로 귀결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기실 전혜린이 비판했던, 노라가 문서를 위조하게 된 행동의 근본적 원인에는 결혼한 여성이 법적으로 경제적인 부문에서의 권리를 단독으로 행사할 수 없다는 사정이 자리했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인형의 집』은 사회구조적으로 여성의 권리 없음을 규정하고 있는 현상을 문제화하고 있는 서사이다. 전혜린의 노라 비판에는 이 같은 현실의 문제를 간취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일정한 한계가 있다.

한편 결국 현실화되지는 못했지만 오영수의 『갯마을』을 번역하고자 했던 시도에서도 여성 또는 여성성에 대한 그의 인식을 간취할 수 있다. 전혜린은 오영수에게 번역을 허락해 준 데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번역 과정에서 생긴 고민을 전하는 편지를 보내는데,<sup>51)</sup> 이때 눈길을 끄는 것이 제목인 ‘갯마을’을 번역하는 문제다. 그는 마을은 촌락을 뜻하는 ‘Dorf’이고 ‘갯’은 고유명사임을 알지만, “자의로 『Frauendorf』(여자들의 마을)”이라고 붙여보았다고 말한다.<sup>52)</sup> 이는 전혜린이 『갯마을』을 해석하는 접근 방향을 짐작하게 한다.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소설의 내용을 통해 그 의도를 추정해 볼 수 있다.<sup>53)</sup> 이 소설의 배경이 되는 작은 마을의 특징은 과부가 많다는 것으로, 여기서도 일차적으로 제목을 정한 이유를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인물의 성격과 행동, 사건을 볼 때 단지 여자들이 많이 사는 마을이라는 뜻으로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도처에서 발견된다.

이 소설의 주인공인 해순은 남편이 죽어도 시어머님을 모시며 사는 등 전통적인 관념을 고수하는 삶을 살아가는 듯 보이지만, 그러한 인습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능동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인물이다. 해순은 첫 남편인 성구가 그녀를 위해 일을 하지 않고 집에만 있으라고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바다에 나가는 것이 성구보다 더 많은 벌이가 가능함을 알고 일을

51) 전혜린은 이 소설을 번역하기로 결정한 이유를 다음의 네 가지로 꼽고 있다. “1. 한국적인 냄새 2. 오리지널리티(Originality)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산다』는 의미 4. 완전한 암흑이 아니고昏昏한 무엇이 느껴지는 결말, 분위기” 이 편지는 1964년 11월 3일에 쓴 것으로 부기되어 있다(전혜린, 『미래완료의 시간 속에』, 325쪽). 이동하는 이 편지에서 전혜린이 ‘한국적인 것’을 발견하는 인식의 ‘발전’을 보여주었으나, 머지않아 죽음에 이르게 되면서 그 성숙의 결실을 보지 못했다고 평가한다(이동하, 앞의 글, 305~308쪽). 그러나 전혜린이 이 글을 쓰기 전 한국적인 것을 멸시하는 태도를 견지했는지는 의문이며, 인간의 삶(생)의 문제를 중시하는 등 『갯마을』을 번역하기로 결정한 이유로 제시되고 있는 네 항목은 서구 소설을 평가하는 그의 기준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52) 전혜린, 『미래완료의 시간 속에』, 324쪽.

53) 오영수의 『갯마을』은 다음의 책을 참고했다. 오영수, 『갯마을』, 『갯마을』, 중앙문화사, 1966, 91~121쪽.

하러 나가고 싶어 한다. 성구가 배를 타고 나갔다가 죽고 몇 년이 지나자 시어머니는 젊은 며느리의 재가를 주선하고, 그녀는 상수와 결혼하여 그의 고향인 산골 마을로 떠난다. 하지만 얼마 되지 않아 상수는 징용을 하러 가게 되고, 그녀는 산 정상에 가도 바다가 보이지 않아 답답함을 느껴 시택을 떠나 다시 갯마을로 돌아온다. 그러고는 해순은 마을의 여성들에게 이제는 절대 떠나지 않고 그녀들과 함께 살겠다고 말한다.<sup>54)</sup> 이처럼 해순은 결혼이나 사랑, 또는 거부장적 인습을 의식적으로 떨쳐낸 인물은 아니지만 거기에 구애되지 않고 자신의 마음과 뜻에 따라 행동한다. 그리고 중국에는 자신과 유사한 처지의 여자들로 구성된 공동체에서 살아갈 것을 선택하는 인물이다. 이렇게 본다면, 전혜린이 자의로 지은 ‘여자들의 마을’이라는 제목에서 ‘여자’는 인습적인 여성의 삶을 살아가는 듯하면서도 여자다움이라 일컬어지는 특질로 조형되지 않는 존재들을 가리킨다. 그러한 다양한 ‘여자들’이 함께 살아가는 마을이라는 의미를 상기하는 이 같은 제목에는 단순한 거주 의미 넘어 여성들 간의 유대 관계가 함축되어 있다.

이와 같이 전혜린은 자신이 읽은 문학 작품 속 인물들을 이해하고, 그에 대한 해석을 번역 등의 글로 전달함으로써 문화적 차원의 젠더 실천을 시도했다. 그 여성 인물들 대개는 사회적으로 규정된 젠더 정체성에 균열을 일으키거나 대결하는 존재이다. 남성성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경계를 횡단하기도 하며, 여자다움이라 일컫는 것을 견지하면서도 거기서 벗어나는 면모를 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여성들이 여성이라 불리지만 고정된 속성으로 환원되지 않음은 물론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전혜린에게 여성성과 남성성으로 이분화된 젠더구조가 그리 견고하지도, 중요하지도 않았음을 방증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54) 이는 다음과 같은 대목에서 잘 나타난다. “『난 인자 안갈테야, 성님들 하고 같이 살테야!』(…) 아낙네들은 모두 서로 눈만 바라보고 말이 없었다.”(118쪽), “『난 인제 죽어도 안갈테야, 성님들 하고 여기 같이 살테야!』”(120쪽) 라는 해순의 발화는 말미에 또다시 반복된다. 위의 글.

#### 4. 결론을 대신하여: ‘읽고-쓰는’ 행위와 수행적 정체성

전혜린이라는 이름을 떠올릴 때 연상되는 것 중의 하나는 평범한 삶을 살지 않겠다는 의지이다. 그의 비범함은 기실 가시적으로 나타났던 그의 옷차림이나 행동 등에서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술을 진탕 먹고 길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큰 소리로 떠드는 행위는 조신한 여성의 삶을 강조하던 당대 흐름에서 하나의 파격으로 여겨졌다. 여름에 겨울 코트를 입거나, 한쪽 눈에만 화장을 하기도 했다고 한다.<sup>55)</sup> 하지만 그의 이런 행동이 현실을 향한 의식적인 저항을 표명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듯하다. 타인의 시선에 사로잡히지 않고서 자유롭게 ‘자기’를 구현하는 문제에 몰두했다고 보는 편이 되레 온당해 보인다. 타인을 모방하지 않으려는 시도, 피짜로 보일 만큼의 괴이한 행동은 사람들의 기억처럼 그의 비범함이나 광기를 보여주는 것일지도 모르지만, 이는 그가 의식하던 의식하지 않았든 결과적으로 명료하게 설명되는 단일한 정체성으로 화하지 않는 젠더를 표현한 셈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전혜린이 강조했던 ‘자기’는 단일하고 고정된 ‘나’로 뜻매김 되지 않는다. 오히려 어떠한 기의도 무한히 받아들일 수 있는 유연함을 지닌 비어있음이야말로 이 기표의 절대성을 보여주는 것일지도 모른다. 요컨대, 매 순간들이 기입해서 만들어지는 찰나의 ‘나’의 연쇄가 전혜린의 ‘자기’인 것이다. 그러한 맥락에서 이러한 ‘자기’는 관념에 불과하다. 하지만 그 관념은 수많은 행위를 낳는, 그리고 그 행위들로 구성되는 한없이 팽창하는 테두리라는 점에서 막연하고 추상적이다. 전혜린의 ‘자기’ 추구가 여성성과 남성성이라는 이분법적 대립 구도를 넘나들며 나타난 것은 여기에 기인한다. 그의 젠더 실천은 실존이 본질에 우선한다는 실존주의에 대한 이해와 긴밀한 연관성을 띠며, 이는 그가 자신의 가치관과 공부한 바를 사회적으로 실현하는 문제에 무감각하지 않았음을 방증

55) 이덕희, 앞의 책, 42~46쪽.

한다.<sup>56)</sup>

지금까지 전혜린이 공식적인 지면을 통해 발표한 글은 번역과 수필에 한정되어 있다. 이에 대해 기왕의 연구는 대체로 그 원인을 전혜린이 기질적으로 소설 장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부정적이고 관념적인 그의 글들이 남성적인 리얼리즘의 세계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입장을 공유하면서도, 여성적 글쓰기의 특징을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하거나 당대 한국 문단에 남성적 문학 규범이 주조를 이루었기 때문이라는 등 조금씩 해석을 달리한다. 그러나 전혜린이 번역한 글들의 형식이 남성과 여성 작가를 막론하고 한 인간이 여러 조건과 환경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 주로 인물의 내면을 독백하는 경향이 짙다는 사실은 그가 추구했던 문학이 현실의 문제와 만나지 못했다는 평가를 재고하게 한다. 게다가 성(性)의 비본질화를 주장했던 그에게 여성적 글쓰기라는 또 하나의 본질을 부여하는 해석 또한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전혜린이 결국 수필이 아닌 허구적 이야기에 해당하는 텍스트를 완성하지 못한 이유를 정확하게 추론하긴 어렵다. 그러나 이에 대한 구상이 전혀 남아 있지 않은 것은 아니다. 1961년 2월 12일 일기에 의하면, 소설이나 희곡, 또는 방송극이라도 한 편 쓰겠다는 생각으로 내용을 구상한 흔적이 남아 있다. 그 내용에 있어 그의 가정환경과 그가 번역한 책들의 영향을 읽어내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다.<sup>57)</sup> 이와 같은 구상이 완성된 형

56) 전혜린의 실천은 ‘읽고-쓰는’ 행위가 긴밀하게 연동되면서 나타난다. 이와 관련하여 익명의 심사위원께서 전혜린의 사례를 통해 ‘읽는 행위’와 ‘쓰는 행위’가 상호 규정하는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향후 이러한 관점에 입각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언급해주셨다. 좋은 지적에 감사드린다. 그 밖에도 심사위원들께서 논문의 발전 방향뿐 아니라 향후 연구 과제와 관련하여 많은 생각을 하게끔 하는 제언을 해주셨다. 글을 완성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부분은 앞으로 공부를 해나가면서 더욱 고민하고, 다음 과제로 삼도록 하겠다.

57) 1961년 2월 12일 일기에 기록된 소설 구상의 기록은 다음과 같다. “내 소설의 기초(基調)가 될 인간상/ ① 서로 증오하는 부부 / ② 그사이에 낀은 서로 증오하는 아이들, 아이들과 부모와의 관계도 여상(如上) / ③ 그 원인 .. 유전, 성격, 환경 /

태로 지면에 발표되지는 않았으며, 유고를 통해 남아 있지도 않다. 하지만 구상을 시작했던 1961년 2월부터 죽음에 이르는 1965년 1월까지 실제 집필이든 머릿속에서 이루어지는 구상이든 반복적으로 쓰고 되새기며 고쳐나갔을 전해린을 상상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의 일기에는 무엇이든 만족하지 않으면 결과물을 내놓지 않겠다는 의지의 기록들이 곳곳에 발견된다. 이렇게 볼 때, 그 글은 능력의 부족으로 완성하지 못했기보다는 완벽을 기하는 과정에서 세상에 내놓지 못한 것일지도 모른다. 이에 대해 확인할 길은 현재로서는 물론 없다. 그러나 이와 같은 구상의 흔적은 전해린이 글을 쓰는 행위를 통해 자신의 욕망과 삶에 대한 응시와 기투를 멈추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전혜린은 ‘자기 추구’라는 핵심 과제에 한없이 몰두하면서 당대 다른 논자들과 변별되는 젠더의식을 보여주기도 했지만, 때로는 이상과 현실의 간극에서 구체적 현실을 도외시한 채 정신적 가치에 경도되었고, 사회적 젠더 규범으로 수렴되는 인식을 노출하기도 했다. 이는 전해린의 사유가 성숙하지 못함을 보여주는 단서로 이해될 여지도 있으나, 이 논문은 그의 사유의 깊이를 평가하기보다는 파편화된 그 인식의 단면들이 어떠한 맥락에서 출현했고 형성되고 있는지에 좀 더 천착하고자 했다. 이는 전해린이 발표한 글을 동시대적 맥락 속에 놓고 읽어어나가는 일이 그의 삶과 사유의 궤적을 신화가 아닌 역사 속에 위치하게 하는 하나의 시도가 되리라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다.<sup>58)</sup> 그간 전해린이라는 텍스트가 신

④ 근본적인 톤 .. 허무주의/ 부 ..... 소관리(小官吏·경찰계통) / 부 ..... (인색·호색·폭력) / 모 ..... (주책·사치·추악) / 아들 ..... (알콜중독·동성애·도벽) / 딸 ..... (신경질적인 성격·동성애·알콜중독·방탕)/시작 ..... 부모의 장례식의 설정 (둘이 살해한 것) / 끝 ..... 둘의 죽음/ 제목..... 설마 <어셔(Usher)가의 몰락>이라고 할 수도 없고..... ?” 전해린, 『미래완료의 시간 속에』, 74쪽.

58) 최근 출간된 김용언의 책은 본격적인 연구서는 아니지만, 그간 전해린이 쓴 글을 평가하는 데 그 주체인 전해린이 부재함을 보여주면서, 그의 글을 전해린이라는 한 개인에게 돌려줘야 할 필요성, 편견 없이 온당하게 읽어야 한다는 문제제기를 담고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 김용언, 『문학소녀(전혜린, 그리고 읽고 쓰는 여자들을 위한 변호)』, 반비, 2017, 7~236쪽.

화해되는 현상을 탐구해온 풍부한 선행 연구의 성과 위에 이 논문은 전혜린 현상이 아닌 전혜린이라는 한 개인에 좀 더 주목하고자 했다. 미숙함이라는 평가를 내리기 전에 그의 지적 배경과 독서 체험을 나란히 놓고서 그의 글과 의식을 이해하고, 동시대 다른 필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의미를 구명하며, 전혜린 또는 여성의 글쓰기에 대한 선행적 잣대를 적용하기 전에 그의 글 자체에 있는 논리를 최우선으로 조명하려 했다. 이를 통해 글을 읽고 쓰는 행위를 통해 나타난 현실에 대한 전혜린의 쟁투의 의미와 한계를 실증적 차원에서 논하는 것이 이 글의 주된 목표 중의 하나였다. 그 과정에서 당대 여성(또는 여성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들이 무엇을 읽고 영향을 받았으며, 어떠한 생각을 해나갔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토대로 한 전혜린 뿐만 아니라 당대 여성들의 목소리를 좀 더 세심하게 들여다보는 연구는 추후 과제로 남겨둔다.

## 참고문헌

### 1. 자료

『세대』, 『여상』, 『여원』, 『자유문학』, 『Fides』

오영수, 『갯마을』, 『갯마을』, 중앙문화사, 1956, 91~121쪽.

전혜린, 『생의 한가운데』, 『독일전후문제작품집』, 신구문화사, 1961, 144~332쪽.

\_\_\_\_\_, 『문제성을 찾아서: 참신한 형식의 문학』, 『독일전후문제작품집』, 신구문화사, 1961, 387쪽.

\_\_\_\_\_, 『현대의 이브』, 『전후문학의 새물결』, 신구문화사, 1962, 81~88쪽.

\_\_\_\_\_, 『미래완료의 시간 속에』, 전혜린 기념출판위원회 편, 광명출판사, 1966, 19~23, 44, 68, 74, 120, 139~140, 161, 166, 234~238, 290~299, 324~325쪽.

- \_\_\_\_\_, 『그리고 아무말도 하지 않았다』(전집 1), 청산문고, 1968, 24~29, 149~154, 171~174, 175~182, 197~210쪽.
- \_\_\_\_\_, 『이 모든 괴로움을 또다시』(전집 2), 청산문고, 1968, 17~18, 66~68쪽.
- \_\_\_\_\_, 『그래도 인간은 산다』(전집 3), 청산문고, 1968, 173~234쪽.

## 2. 단행본

- 김용언, 『문학소녀(전혜린, 그리고 읽고 쓰는 여자들을 위한 변호)』, 반비, 2017, 7~236쪽.
- 변광배, 『제2의 성: 여성학 백과사전』, 살림, 2007, 107~119쪽.
- 이덕희, 『전혜린(사랑과 죽음의 교향시)』, 나비꿈, 2012, 42~46, 80, 106쪽
- 시몬 드 보부아르, 조흥식 역, 『제2의 성』(상), 을유문화사, 1993, 9~31쪽.
- 주디스 버틀러, 조현준 역, 『젠더트러블』, 문학동네, 2008, 114~149쪽.
- R. W. 코넬, 안상욱·현민 역, 『남성성/들』, 이매진, 2013, 112~135쪽.

## 3. 논문

- 김기란, 「1960년대 전혜린의 수필에 나타난 독일 체험 연구」, 『대중서사연구』 제23호, 대중서사학회, 2010, 67~97쪽.
- 김미정, 「여성교양소설의 불/가능성-‘한국-루이제 린저’의 경우(1)」, 『문화과 사회』 제116호, 문학과지성사, 2016, 64~87쪽.
- 김양선, 「1950년대 세계여행기와 소설에 나타난 로컬의 심상지리 : 전후 여성작가들의 작품을 중심으로」, 『한국근대문학연구』 제22호, 한국근대문학회, 2010, 205~230쪽.
- 김륜옥, 「잉에보르크 바흐만과 전혜린-1950년대 전후 독일 및 한국 여성지식인의 삶과 문학」, 『혜세연구』 제20집, 한국혜세학회, 2008, 301~329쪽.
- 김복순, 「전후 여성교양의 재배치와 젠더정치」, 『『여원』연구: 여성·교양·매체』, 한국여성문학학회 『여원』연구모임 편, 국학자료원, 2008, 23



~55쪽.

- 김윤식, 「침묵하기 위해 말해진 언어」, 『한국근대작가론고』, 일지사, 1974, 397~405쪽.
- 김현주, 「1950년대 여성잡지와 ‘제도로서의 주부’의 탄생」, 『『여원』연구: 여성·교양·매체』, 한국여성문학학회 『여원』연구모임 편, 국학자료원, 2008, 56~82쪽.
- 김화영, 「‘화전민’의 달변과 침묵」, 『바람을 담는 집』, 문학동네, 1996, 123~130쪽.
- 박숙자, 「여성은 번역할 수 있는가- 1960년대 전혜린의 죽음을 둘러싼 대중적 애도를 중심으로 -」, 『서강인문논총』 제38집, 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3, 5~42쪽.
- 서은주, 「경계 밖의 문학인- ‘전혜린’이라는 텍스트」, 『여성문학연구』 제11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04, 33~56쪽.
- 이동하, 「전혜린에 대해서 몇 가지 더 생각해야 할 것들」, 『한국문학과 인간해방의 정신』, 푸른사상, 2003, 300~312쪽.
- 이임하, 「한국전쟁과 여성노동의 확대」, 『한국사학보』 제14호, 고려사학회, 2003, 251~278쪽.
- 이행미, 「전혜린 문학에 나타난 ‘고향’과 ‘회상’의 글쓰기」, 『한국현대문학연구』 제54집, 한국현대문학회, 2018, 413~453쪽.
- 이행선·양아람, 「루이제 린저의 수용과 한국사회의 ‘생의 한가운데’-신여성, 인생론, 세계여성의해(1975), 북한바로알기운동(1988)」, 『민족문화연구』 73권,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16, 267~303쪽.
- 임미진, 「1945~1953년 한국 소설의 젠더적 현실 인식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7, 1~177쪽.
- 장순란, 「한국 최초의 여성 독문학자 전혜린의 삶과 글쓰기에 대한 조명」, 『독일어문학』 제21호, 한국독일어문학회, 2003, 149~174쪽.
- 전지니, 「8.15 해방과 ‘노라’ 이야기- 최의순의 ‘노랑이집」, 정비석의 「안해의 향의문」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55집, 한국문

학이론과비평학회, 2012, 175~201쪽.

조혜란, 『『제2의 성 Le deuxieme sexe』의 초기 한국어 번역과 수용: 이용호의 1955년, 1964년 번역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1~155쪽.

진성희, 『장아이링과 전혜린의 글쓰기와 '일상'』, 『중국어문논역총간』 제22집, 중국어문논역학회, 2008, 323~345쪽.

천정환, 『처세 · 교양 · 실존: 1960년대의 '자기계발'과 문학문화』, 『민족문학사연구』 40권, 민족문학사학회, 2009, 91~133쪽.

## Abstract

### Jeon Hyerin's Gender Consciousness and Practical Writing

Lee, Haeng-mi

Jeon Hyerin has been considered as a sensitive individual who could not stand a repetitive and depersonalized daily life. Her voice pursuing 'existence' and 'self' was regarded as what highlighted ideality and revealed indifference to others and the society. However, the world of her consciousness inharmonious with the reality is also the indicator showing a tension and competition with the oppressive reality where one cannot live as a 'true self'.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find out how the ideational values regarded as what Jeon Hyerin pursued were produced in what context and what relation they have to the issues in the reality.

Her practical deed to pursue 'self' was embodied as she refused an obstacle—the gender bias rigidified under the patriarchal system of South Korea at that time—to it. In the atmosphere where socioculturally-formed femininity needed to be internalized, she showed that one could cross the line between femininity and masculinity and created a crack in the solid dichotomous view on gender. At this point, the power to traverse the essentialized gender starts from not turning away from the very moment when 'self' is recognized. In the fixed logic about role gender socially inducing women's loss of self, she argued that staring at this absurdity that every woman could feel was the only opportunity to live a life for 'self' that did not follow conventionalities and the viewpoint of

others. Such a way is closely related to the reasons shown in existentialist philosophy by Sartre and Beauvoir and the book she read, *In the Midst of Life* by Luise Rinser. In addition, she expressed her sympathy and support for multiple women undefinable as a single identity whom she had met through reading by the act of writing including translation, indicating the reasons not to harmonize with the gender rules in the public sphere. It suggests that she developed her motivator and ways to write so as to fight against the reality and overcome limitations, influenced by the books she read.

This way, she carried out a cultural practice shaking the gender norms through writing and reading. Moving across the boundary between femininity and masculinity, which were standardized, she emphasized individuals who created 'themselves', and as a result, it appeared as a performance tearing down the dichotomous gender structure of those days. Viewed in this way, it can be said to be an on-sided interpretation to affirm that the attempts to escape from the ordinary and snobbishness seen in her works are to disregard the detailed reality or to get away of the reality.

Key words : Jeon Hyerin, gender, existentialism, self, femininity, masculinity, identity, reading, translation, performativity

■ 본 논문은 2019년 3월 15일에 접수되어 2019년 3월 19일부터 4월 6일까지 소정의 심사를 거쳐 2019년 4월 15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